도시농업 가이드북
발간등록번호 11-1390804-000122-01

내가 만드는 실내정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머리말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웰빙(well-being), 녹색 생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및 사무공간 등 실내공간에서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실내 공간에 살아 있는 녹색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실내조경은 고달픈 삶 속에서 생기를 발산하는 안식처와 정서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에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에서는 도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어디서나 녹색식물을 쉽고 편리하게 가꾸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환경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기정화식물과 식물의 기능에 따라 생활공간별 배치방법, 부착형화분 등의 새로운 실내정원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실내정원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실내조경의 노하우(Know-how)를 모아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엮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은 아름다운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과 녹색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그린 홈 · 그린 오피스』를 만들어 식물을 돌보는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0.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최 동 로**

contents

실내정원의 기본 기술

분식물 장식 전 고려할 사항 • 5
분식물 장식 시 고려할 사항 • 6
분식물 장식의 디자인 • 12

분식물 장식의 실제

공중걸이(Hanging basket) • 21
접시정원(Dish Garden) • 25
테라리움(Terrarium) • 27
토피아리(Topiary) • 33
착생형 식물의 활용 • 35
수경장식(Hydroculture) • 40
컨테이너 가든(Container garden) • 43
부착형 실내정원 • 44

실내정원의 관리방법

분갈이

분갈이가 필요한 때와 분갈이 시기는? • 51
분갈이에 필요한 도구와 용기의 선택 • 52
분갈이 용토의 특성과 적정한 배합조건 • 54
분갈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 55
분갈이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57

물 관리

물 주는 방법 • 58
관수 문제의 원인과 대책 • 59
실내식물을 위한 습도 조절 방법 • 61

분식물 장식용 이용식물 • 65

내가 만든 실내정원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

실내정원의 기본 기술

분식물 장식 전 고려할 사항

첫째, 실내 환경 및 관리 조건에 알맞은 식물을 선택한다.

➡ 식물마다 좋아하는 온도, 광, 물 등 조건이 있고, 배치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식물과 어울리는 용기를 선택한다.

➡ 식물과 용기의 형태 및 크기를 비교하여 어울리는 짝꿍을 찾아주는 것이다. 다양한 크기, 잎 모양, 질감, 색상 등의 조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더불어 배치장소의 배경 이미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셋째, 식물의 형태와 모양을 고려한 정원구성 요소별 식물을 선택한다.

➡ 구성 요소별 식물을 적절히 선택하면 디자인의 표현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 **주가 되는 식물** : 높이감을 주는 큰 키 모양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중간 키 모양의 식물** : 정원의 기본적인 골격(framework)을 형성하고, 특히 잎의 색이 다양한 식물을 선택하면 그 효과가 더 강조된다.
- **늘어지는 덩굴성 식물** : 분식물 장식의 흐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분식물 장식 시 고려할 사항

배수구가 없는 용기의 배수층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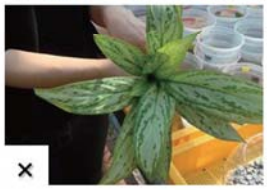
- 분식물 장식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입자숯을 이용하여 배수층을 만들면 정화작용까지 겸할 수 있다.
- 숯 입자에 뿌리가 직접 닿지 않도록 배양토로 경계를 두고, 식재부와 구분한다.
- 수경형 정원의 경우, 숯은 정화작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쓰는데, 보통 통숯을 이용하고, 가벼워 뜰 수 있으므로 무거운 배지(세척한 마사토, 맥반석 등)로 처리 후 식물을 식재한다.

지제부 모아 뿌리 정리하기

- 화분에서 흙을 떨어내고 뿌리를 가지런히 정리한다.
- 지제부를 모아 가며 식물의 얼굴을 만들어 본다.
- 가장 맘에 드는 얼굴을 결정한 후, 뿌리 부분을 사방으로 자연스럽게 펼쳐 준다.
- 뿌리는 용기 안쪽 중심식물을 향하도록 하여 건조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한다.
- 특히 덩굴성 식물인 경우, 작은 돌을 괴어 얼굴을 높여 주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식재할 수 있다.

식물체 얼굴 정하기

- 식물체의 사방을 살펴 앞 얼굴을 정한다. 앞쪽으로 작고 낮은 잎이 보이고 후면에 크고 높은 잎을 배치한다.
- 식물체를 쥐고 심을 때는 줄기 윗부분을 꼭 쥐지 말고 뿌리와 줄기가 나누어지는 지제부를 살짝 잡고 뿌리를 고정하여야 본연의 얼굴을 살릴 수 있다.



심기 전 노란 잎과 상한 뿌리 정리는 필수!

- 화분에서 꺼내어 사용할 만큼 포기를 나눈다.
- 노란 잎, 시든 잎, 썩은 뿌리를 제거한다.
- 뿌리가 너무 길 경우, 용기 식재 높이를 기준하여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바위틈 사이에서 나온 듯한 식물 연출법

- 자연석 사이에 심어 바위틈에서 나오는 듯한 자연미를 연출한다.
- 화산석이 놓일 위치를 잡고, 기준이 되는 지점에 돌을 배치한다.
- 뿌리 방향을 본래 모습대로 가지런하게 배치한다.
- 기준이 되는 화산석을 약간 들어, 뿌리의 방향을 용기 중심으로 향하게 한 후 배양토를 덮은 후 나머지 화산석으로 식물의 줄기와 잎이 돌에 눌리지 않도록 지긋이 고정한다.

식물체 고정 확인

- 뿌리가 심겨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찔러 보아 배양토가 부족한 부분에 배양토를 충분히 채운다.

자연이끼의 처리 방법

- 잔디밭과 같이 식물이 땅을 덮은 듯한 표현을 할 때 자연이끼를 이용한다.
- 나무줄기나 낙엽 등을 제거한 후, 이끼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기를 준다.
- 양 손바닥으로 마주 잡은 상태에서 이끼 조직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힘을 주어 뜯는다.
- 이끼를 손바닥에 엎어 놓고, 물기가 있는 배양토를 얹어 볼록한 모양으로 만든 후 배치할 장소에 배치한다.
- 이끼의 가장자리를 안쪽 방향으로 감싸면서 깔끔하게 정리한다.

통숯의 이용 방법

- 세로로 자를 경우 나무의 결을 따라 가위 집을 넣어 주면 쉽게 갈라진다.
- 통숯의 키를 낮출 경우, 쇠톱으로 자르거나 쇠망치로 한 점을 세게 쳐서 이용한다.
- 전정가위로 숯에 사선으로 가위 집을 주면 반짝반짝한 반사면이 많아 더 매력적이다.
- 세로로 조각을 내어 두껍지 않은 숯의 경우, 전정가위 충격으로 높이를 줄일 수 있다.
- 수경용으로 이용 시, 검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 사용해야 한다.

색모래(color stone)층 만들기

- 색모래를 장식한 유리면에 배양토가 묻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다.
- 배양토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정리한다.
- 숟가락을 유리벽 방향으로 하여 벽에 붙여 색모래를 장식하며 유리면 앞쪽에서 색모래의 두께와 모양을 살핀다.
- 배양토의 처음과 끝에 장식하는 색모래는 검정색으로 해야 다른 색깔의 색모래가 더욱 더 강조된다.
- 색모래끼리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 색의 특징, 두께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색모래층 장식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배양토로 한 층 덮어 준다.
- 색모래 장식에 치우쳐 색모래층이 식재 부위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층의 높이를 결정해 놓고 그 이하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마사토, 옥자갈 등 표면 장식하기

- 쇠숟가락을 이용하여 장식배지로 경사진 길이나 계곡을 만들어 준다.
- 포인트가 되는 장식배지를 강조할 때, 배경으로는 자연스러운 색과 질감을 가진 마사토나 맥반석으로 장식한다.
- 미취색의 큰 옥돌은 시원한 느낌을 더해 줄 수 있다.
- 장식배지는 그룹으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
- 표면 장식 후 용기의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준다.

식물체 형태 정리하기

- 키가 큰 식물체의 잎이 다른 식물체의 관상을 방해하는 경우는 단정하게 정리하여 준다.
- 노란 잎이나 시든 잎을 잘라 준다.

스프레이 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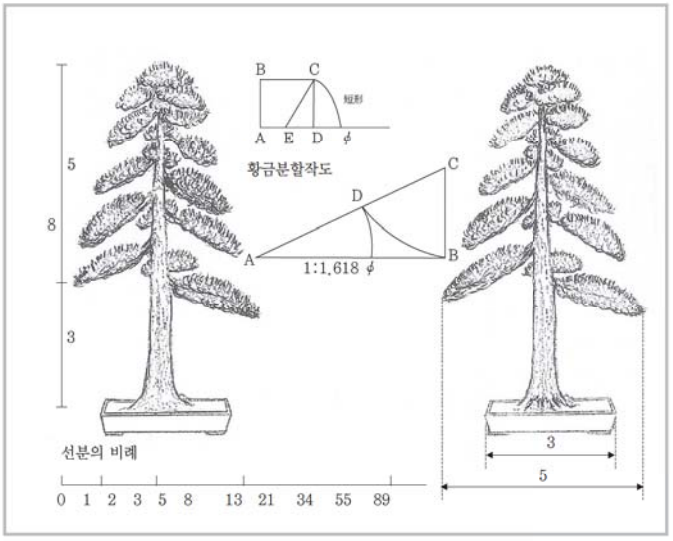
- 투명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배양토에 물기가 있는 정도를 용기 바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시정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배양토가 사용되므로 시간차를 두어 물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한다.
- 수경장식의 경우 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여 완성시킨다.

분식물 장식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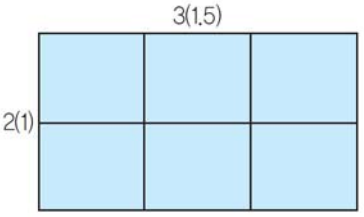
크기와 비례미

- 소재의 크기는 용기 크기와의 비례가 관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섬세한 느낌과 힘찬 기세를 올리는 위상, 멀리 보이는 원경, 가깝게 보이는 근경, 크기의 배치에 따라 보이는 균형미 등은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 비례의 수치는 인체 비례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든 인간은 비례미가 인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인체 비례는 키가 183cm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체 비례미를 정하여 5:8 이라고 하는 비례를 활용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서양인보다 작은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2:3의 비례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 **적용방법** : 실내정원을 구성하는 식물의 크기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공간 높이의 2/3 정도를 상층목, 상층목의 2/3를 중층목, 중층목의 2/3를 하층목의 크기로 결정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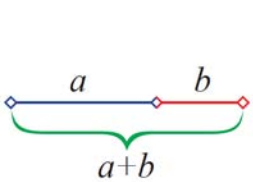
분재의 황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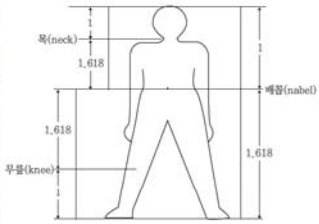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황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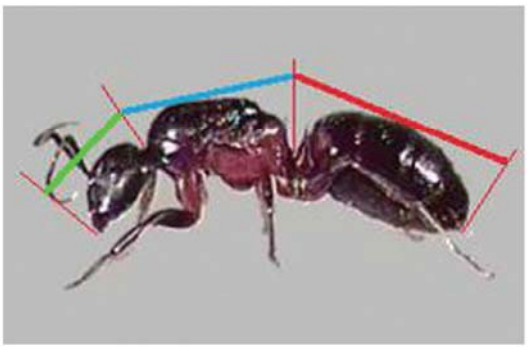
- 황금비(黃金比) 또는 황금분할(黃金分割)은 주어진 길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둘로 나누는 비로, 근사값이 약 1.618인 무리수이다.
  황금비(phi)는 선분을 a,b 길이로 둘로 나눌 때, 다음과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황금비
  고대 그리스로부터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 황금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명함, 담배갑, 신용카드 등에서도 볼 수 있다. HDTV나 컴퓨터의 와이드 모니터 등에는 9:15(3:5), 10:16(5:8) 등의 비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황금비의 근사값이라 할 수 있다.
- 꽃(정오각형), 나뭇잎(간격, 가지가 나오는 방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쉐플레라(홍콩야자)의 잎을 보면 반대쪽 잎끼리는 황금비로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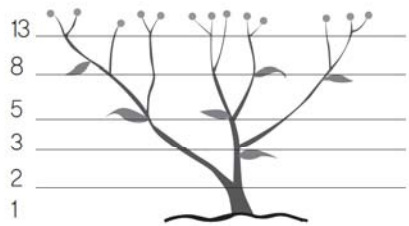
개미의 경우 머리가 1이라고 한다면 가슴이 1.618, 가슴이 1이라고 한다면 배가 1.618로 개미의 머리, 가슴, 배의 비례가 황금비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미학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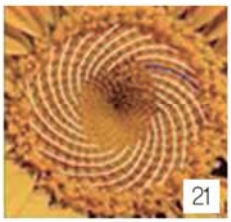
자연 생태계의 법칙과 질서, 신비로운 원리를 실내정원 디자인에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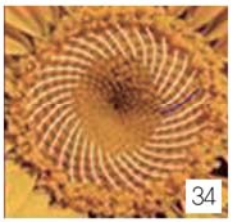
-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란, '0,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와 같이 앞의 두 수를 합한 것이 그 다음 수가 되는 규칙이 있는 수열을 의미한다. 꽃잎 수, 식물의 잎차례, 파인애플, 솔방울의 나선 수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피보나치 수열의 앞 수와 뒤 수의 비율이 뒤의 수열로 갈수록 황금비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식물의 잎사귀는 위쪽 줄기에 있는 잎사귀에 방해 받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양의 햇빛을 받기 위해 피보나치 수열로 배열한다. 꽃은 암술과 수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싸며 꽃가루받이 확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피보나치 수열로 꽃잎을 맺고, 솔방울이나 해바라기 열매는 최소 공간에 가장 많은 씨앗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최적의 수학적 방법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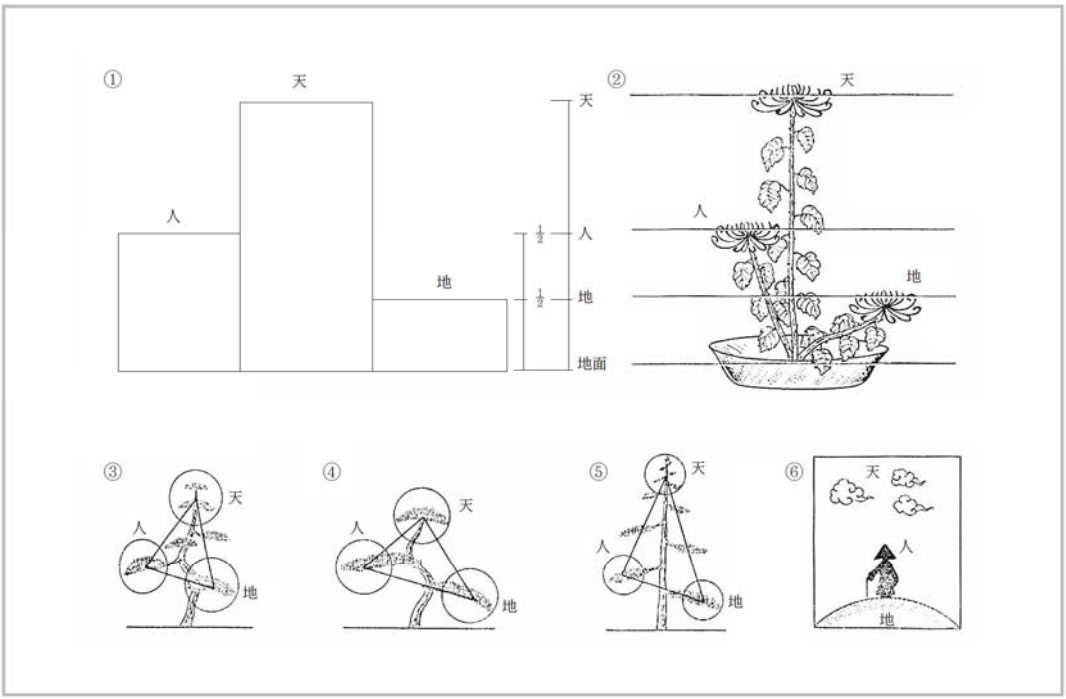




해바라기 씨앗 나선에서 발견되는 피보나치 수열

솔방울 나선에서 발견되는 피보나치 수열

초물경 작품의 연출기법(삼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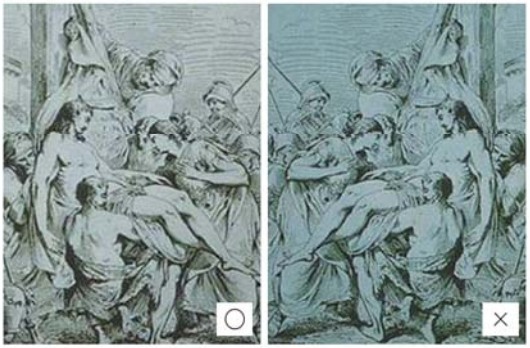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삼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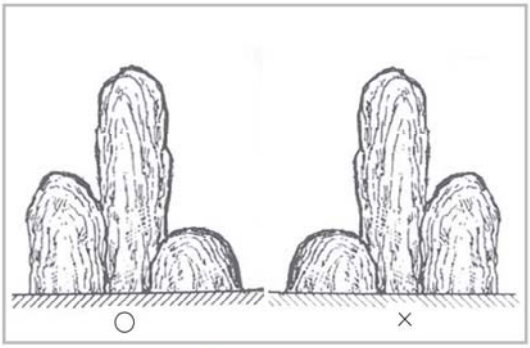
시각의 편중

- 인간의 시선은 어떤 사물을 바라다볼 때 중심축으로부터 양편의 균형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우측에 힘을 실어 무게를 주고 보는 습성이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림을 거울에 비추어 반대로 놓고 보면 무게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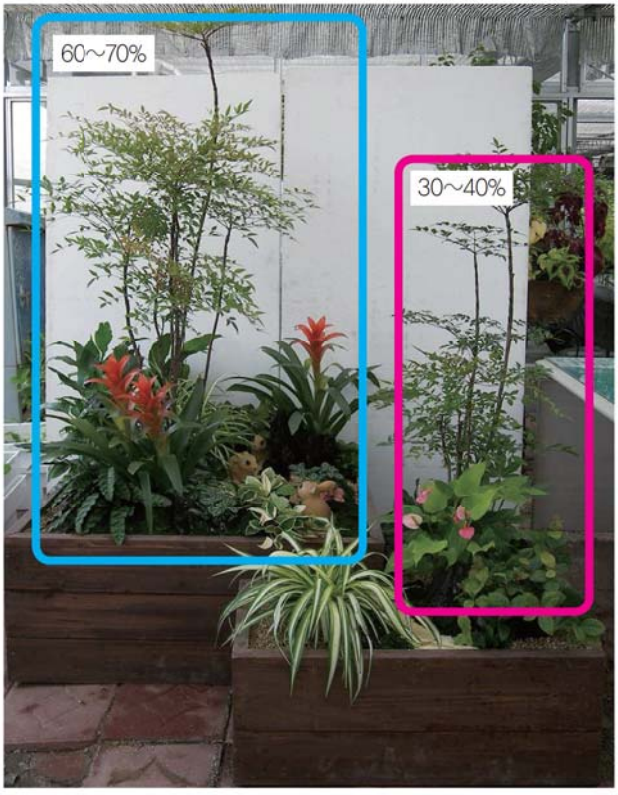
- 석부작이나 목부작, 초물경작 모두는 우측을 약간 가볍게 하는 동시에 좌측에 약간의 무게를 더해 주어야 균형이 유지되며 쾌적한 안정감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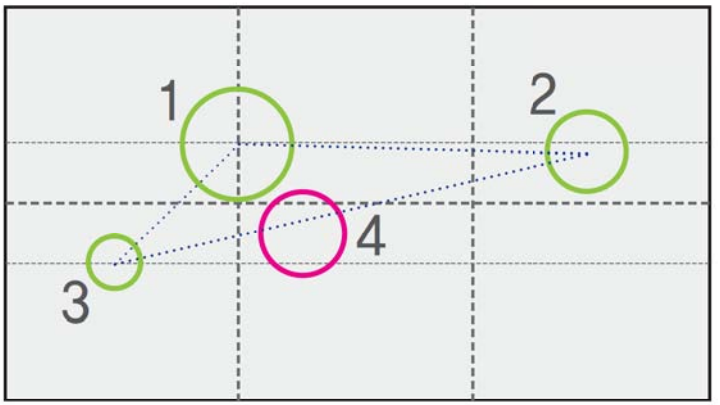
시각편중 작품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수
(18세기 독일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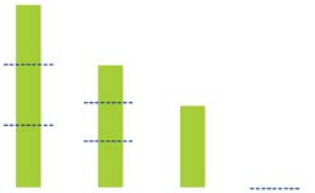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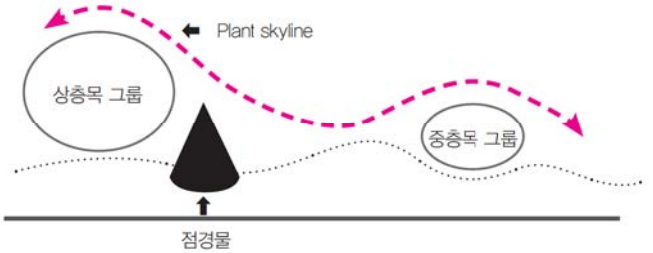
정원석의 수직선 조합



배식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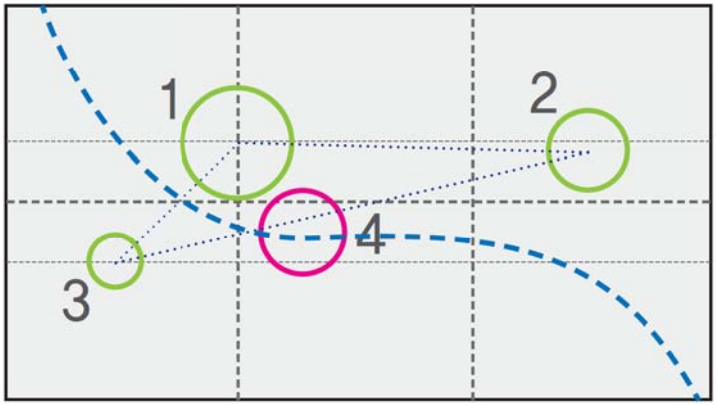


실내정원의 흐름

- 실내정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흐르는 S자 곡선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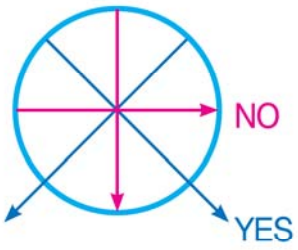
덩굴성 식물의 흐름

- S자의 흐름을 살려주기 위하여 1 주제식물 하단의 하층목, 지피식물은 전체 정원의 흐름을 고려하여 늘어뜨리지 않고 세워 준다.
- 2 주제식물 하단의 덩굴성 식물은 흐름을 강조하여 늘어뜨려 준다.



점경물, 식물의 배치 시 주의점

- 식물이나 점경물은 서로 대화하듯이 바라보듯(서로 다른 방향을 보지 않도록) 배치한다.
- 3개일 경우 2:1과 같이 달리하여 직각의 방향보다는 대각선의 방향으로 배치한다.
- 점경물의 배치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공간의 미를 살림

- 표면장식돌을 이용하여 골짜기, 계곡의 흐름을 보여 준다.
- 정원 전경으로 여백의 미를 두어야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

POINT

- 장식배지를 배치할 경우에 같은 종류의 배지들을 몰아서 배치하는 것이 장식 효과가 뛰어나다.
- 한 종류의 배지가 분산되어 있을 때와 모여 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 보자.
- 이동 시 최소한의 물만 넣어 무게를 가볍게 한 후 정착 후 물을 채워 준다.
- 시중에 유통되는 전용 유리 용기는 내구성이 약하여 깨지기 쉬우므로 이동 시 주의해야 한다.

좋아요! 나빠요!

실내정원으로 집안 곳곳~ 싱그러운 산소통을 만들어 보자!

공중걸이(Hanging basket)

유럽을 여행하거나 잡지에서 보면 유럽의 거리에는 유난히 공중걸이가 눈에 많이 뜨인다. 처음에는 그 곳의 기후가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고 여름에는 우리나라처럼 집중장마철이 없으며 연중 골고루 자주 비가 내려 쉽게 관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유럽인들은 꽃을 사랑하는 문화가 있는 국민이어서 역시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 사랑의 문화 이전에 공중걸이가 고급 레스토랑 앞에 주로 많이 걸려 있음을 보면 공중걸이의 용도는 상업적인 이윤창출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관공서 앞에 덩굴성 페튜니아 공중걸이가 걸리기 시작했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삭막한 거리를 화사하게 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사람들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가 머리 위로 드리워진 숲속을 걸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는다. 실내공간에 대형 수목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 걸이분에 심은 식물을 사람들의 머리 위에 드리우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들이 공중걸이 디자인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관공서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장소에 많이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한 공중걸이 작품을 만들어 보자.

분식물 장식의 실제

공중걸이 이용 시 주의할 점

- 매다는 장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모와 용기의 재질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사방에서 즐길 수 있는 모양의 경우, 식물과 배양토가 많이 소모되고, 배양토가 충분히 물을 머금은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간다. 보통 처마 밑이나 베란다, 현관 등의 단단한 곳이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장소에 매달아 즐긴다.
- 실내의 경우에는 물받침이 함께 부착되어 있거나 배수구가 없는 분을 이용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공중걸이에 적합한 식물

주로 덩굴성이나 반덩굴성 식물, 잎이 긴 것, 잎이 아름다운 것, 꽃이 밑으로 피는 등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식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식재하는 것이 포인트다. 입체적인 장식을 필요로 하는 공간 및 좁은 공간에서는 벽이나 공중에 걸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덩굴성식물**
  - ➡ 아이비, 러브체인, 녹영,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스킨답서스, 호야, 산호수, 트라데스칸티아, 제브리나, 뮤렌베키아(트리안), 아스파라거스 등
- **포복줄기에 어린 포기가 달리는 식물**
  - ➡ 접란, 바위취 등
  - ➡ 덩굴식물만큼 길게 늘어지지는 않지만 걸이분에 심게 되면 어린 포기를 아래로 늘어뜨려 재미있는 구성을 이루게 된다.
- **잎과 더불어 꽃을 관상할 수 있는 식물**
  - ➡ 베고니아, 제라늄, 펠라고니움, 덩굴성 페튜니아, 임파티엔스, 일일초, 미니장미, 만데빌라, 덩굴성 자스민, 브라이달베일, 틸란드시아 시아네아 등
- **기타**
  - ➡ 보스톤고사리의 녹색 잎, 착생난인 반다(Vanda)는 아래로 뻗어 내려오는 긴 뿌리가 매력적이다. 벌레잡이통풀이나 수염틸란드시아(*Tillandsia usneoides*)는 독특한 모양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공중걸이의 관리

- **공중걸이의 적응**
  - ➡ 일주일 정도 밝고 따뜻한 장소, 여름에는 직사광선과 강한 바람이 닿지 않는 서늘한 그늘에 배치한다.
- **장식할 장소에 배치**
  - ➡ 뿌리가 정착된 후, 구성 식물이 좋아하는 광조건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하였던 장소에 배치한다.
  - ➡ 11월 하순경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므로 실외에 있는 것은 실내의 해가 잘 드는 곳에 들여 놓고 관리한다.
- **물관리**
  - ➡ 실외 공중걸이는 실내에 비해 건조하기 쉽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 보통 화분보다 물주기의 횟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배양토의 수분 상태를 관찰하여 물을 준다.
  - ➡ 실내 공중걸이의 경우, 장식물을 아래로 내려 충분히 물을 주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리에 배치한다.

공중걸이 실제 만들어 보기

① 공중걸이에 비닐을 깐 것은 물빠짐의 면에서 볼 때는 좋지 않으나 실내나 베란다에서 물 준 후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물고임에서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 제일 아랫부분에 숯 조각을 넣고 그 위에 무게가 가볍고 배수가 잘되는 난석을 깐 후 배양토를 넣고 완효성 고형 비료를 준다.

② 비료가 바로 뿌리에 닿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배양토를 깐 후 식물을 식재한다. 브라이달베일을 화분 가장자리에 먼저 심는다.

③ 브라이달베일 2포트를 둥글게 심고 사이사이에 배양토로 잘 채워 준다.

④ 미니장미를 포트에서 꺼내어 가운데로 둥글게 심어 준다.

⑤ 식물 사이를 배양토로 채우고 제일 윗부분은 마른 이끼를 물에 충분히 적신 후 깔아 주어 마무리한다. 물 줄 때 가벼운 펄라이트가 떠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수분 유지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을 충분히 준다.

⑥ 꽃이 피고 난 후 재빨리 시든 봉오리를 제거해 주어야 다음 꽃이 빨리 핀다.

접시정원(Dish Garden)

접시정원은 넓적한 접시 모양의 용기에 여러 가지 식물을 함께 심어 만든 축소된 정원의 형태를 말한다. 용기 재료는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등 재질에 상관 없이 항아리 뚜껑, 접시, 화분받침 등 자유로운 분식물 장식을 시도할 수 있다.

접시정원 이용 시 주의할 점

- 배수 구멍이 없는 용기의 경우 배수층을 만들어 물길이 연결되는 것을 끊어 준다.
  - ➡ 토양이 과습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용기 내 주식물을 중심으로 배양토를 높게 북돋워 식재한다.
  - ➡ 접시의 깊이가 낮으므로 배양토가 충분히 담길 수 없지만, 용기 내 주식물을 중심으로 배양토를 높게 북돋워 식재하면 충분한 배양토가 이용될 수 있다.
- 생태형이 비슷한 식물들끼리 모아 접시정원을 구성한다.
  - ➡ 생태형에 따라 건조형, 적습형, 수경형으로 나눌 수 있다.
  - ➡ 생태형이 비슷한 식물들끼리 모아 심으면 관리하기 쉽다.

접시정원에 적합한 식물

접시정원의 완성 후 가능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라는 속도가 느리거나 외부환경에 따라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뿌리 부분이 너무 발달한 식물은 식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가능한 생태형이 비슷한 식물끼리 모아 심는 것이 관리하기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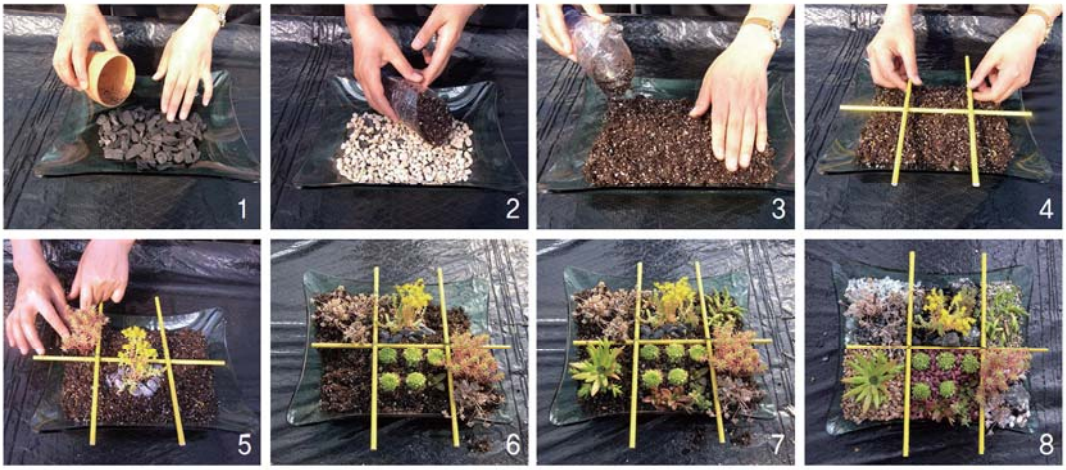
- **큰 키 나무 모양의 식물**
  - ➡ 폴리시아스, 파키라, 테이블야자, 드라세나류, 백량금, 아라우카리아 등
- **중간 키 나무 모양의 식물**
  - ➡ 칼라데아류, 코르딜리네, 마란타, 페페로미아, 필로덴드론류, 필레아류, 싱고니움, 비제티접란, 스파티필럼, 아글라오네마 등
- **작은 나무 모양의 식물**
  - ➡ 무늬산호수, 자금우, 황금사철나무, 크로톤, 백정화, 피토니아, 무늬석창포, 왜란 등
- **땅을 덮는 식물**
  - ➡ 이끼, 셀라기넬라, 솔레이롤리아, 푸밀라고무나무 등
- **늘어뜨려지는 식물**
  - ➡ 아이비, 마삭줄 등
- **기타 경관 연출**
  - ➡ 화산석, 자연석, 자갈, 통숯 등

접시정원의 관리

- 실내 광이 드는 거실의 장식장이나 테이블 위에 장식한다.
- 물 관리

  ➡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이므로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는 경우, 배양토가 물을 흡수하기 전, 배수층으로만 물이 고이므로 압축식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식물체 뿌리 부분으로 천천히 물이 스며들도록 시간 차를 두어 물을 준다. 천천히 공급한 물이 배수층으로 고일 만큼 충분히 준다. 혹시라도 물을 과다하게 주어 접시 용기가 물로 채워진 경우, 식물의 생육을 생각하여 물을 스며들게 하는 종이를 이용하여 과다한 물을 빨리 제거해 준다.

접시정원 실제 만들어 보기



① 같은 접시라면 어떤 모양이어도 좋다. 배수구멍이 없으므로 물 정화 역할을 하는 입자 숯을 바닥에 깐다.
② 입자 숯 위에 난석과 배양토를 넣는다.
③ 식물의 심을 간격을 막대 등으로 구획한다.
④ 키가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다육식물 위주로 구획별로 식재해 보자. 뿌리 부분은 다소 무거운 자갈이나 마사토로 눌러 준다.
⑤ 같은 종류를 반복해서 심을 경우, 서로 사선으로 심는다.
⑥ 8가지 다육식물의 심기를 마친다.
⑦ 마사가 보이지 않도록 서로 다른 질감의 색돌로 윗부분을 장식한다.
⑧ 구획해 놓은 막대를 치우면 작품이 완성된다.

테라리움(Terrarium)

테라리움(terrarium)이란 라틴어의 terra(땅)와 arium(용기, 방)의 합성어로 습도를 지닌 투명한 용기 속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테라리움의 원리**

  자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생리작용과 대기의 자연 순환 법칙을 이용한다.

  ➡ 뿌리에서 빨아 올린 물이 식물의 기공을 통해 배출되면 유리벽에 물방울로 되어 있다가 떨어져 다시 뿌리로 흡수된다.

  ➡ 낮에는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에 의하여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며, 밤에는 호흡작용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내뿜는 산소의 순환으로 지탱된다.

  ➡ 물과 산소의 순환이 용기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다.

용기의 개방 여부에 따라 용기가 뚜껑으로 닫힌 밀폐식 테라리움(closed terrarium, 내부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습기에 잘 견디는 식물이 유리함)과 용기의 일부분이 열려진 상태의 개방식 테라리움(open terrarium,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실내식물들이 이용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비슷한 식물들끼리 심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나눌 수 있다.

테라리움 이용 시 주의할 점

대부분의 테라리움은 투명 용기 안쪽에 식물을 식재하여, 그 공간 안에서만 식물이 자라므로 너무 빨리 생장하면 금새 답답해진다. 가능한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건 및 관리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테라리움 용기

① 광선의 투과가 유리한 용기
② 식물 생장에 필요한 토양을 넣을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용기
③ 식물 생장에 필요한 공간, 공기, 수분을 갖출 수 있는 용기
④ 주변의 위치와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용기의 모양과 질, 크기 결정
⑤ 바닥이 밀폐된 용기라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표본병, 어항, 수족관, 양주병 등)

	유리제품	아크릴제품
장점	투명하고 변색이 안 됨	가볍고 깨지지 않음
단점	깨지기 쉽고 무겁고 값이 비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잘되고 표면에 상처가 남

• 도구

테라리움 용기에는 수족관이나 어항처럼 용기 내에 손을 자유롭게 넣어 작업하고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주병처럼 용기의 입구가 좁은 것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도구 없이 그대로 식재하거나 토양을 채워 넣기가 어려우므로 용기 내에 토양을 넣거나 식재 및 관리하는 테라리움용 도구로서 깔때기, 분무기, 전정용구, 작업봉, 꽃삽, 핀셋 등이 필요하다.

도구명	기능 및 사용방법
청소기구	테라리움 제작 작업이 끝나면 용기 안쪽의 흙을 털어 주기 위한 기구로 붓이나 긴 나무젓가락 끝에 솜을 뭉쳐서 만듦
깔때기	용기 내 흙을 채우거나 식물을 심고 난 다음 뿌리 근처에 흙을 채워 주기 위한 긴 유리기구
숟가락	흙 구멍을 팔 때 사용하며 길이가 긴 나무 끝에 티스푼을 매달아 만듦
안착기(placer)	심을 식물을 안착시켜 병 속으로 넣기 위한 기구로 긴 철사 끝에 고리 모양을 만듦
집게	핀셋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식물을 집어 넣는 데 사용함
분무기	압력을 가하여 미세한 입자가 지속적으로 분무되는 압축 분무기가 이용하기에 편함
전정기구	식물이 웃자라거나 보기 좋지 않을 때 관리함

● **용토**

테라리움에 적당한 용토는 일반적으로 가볍고 공기가 잘 유통되어야 하고, 병균과 벌레가 없어야 한다.

① 배수층 : 자갈, 화분조각, 펄라이트, 경석, 화산석, 목탄 등

② 상토층 : 적합한 토양은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등이 좋다. 부엽토나 모래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소독하며, 퇴비를 섞을 때는 완숙한 것을 써야 한다.

③ 표면층 : 색깔이 있는 모래, 이끼, 펄라이트, 자갈, 해미석, 옥석, 조개껍질 등

테라리움에 적합한 식물

- 용기 안에 심을 수 있는 작은 식물이 주로 이용되고, 비슷한 성질의 식물들끼리 식재하여야 관리가 용이하다.
- 높은 습도와 일정한 온도, 실내 공간의 낮은 광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식물의 생장이 느려 잘 자라지 않는 식물류를 선택한다.
- 주로 이용되는 식물은 잎보기(잎색, 잎모양이 아름다운) 식물 중, 크기가 작고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식물들이다.
  - ➡ 싱고니움, 푸밀라고무나무, 드라세나류, 피토니아, 접란, 아글라오네마, 페페로미아, 호야, 마란타, 테이블야자, 코르딜리네, 필레아, 셀라기넬라, 아디안텀, 프테리스, 네프롤레피스, 아스플레니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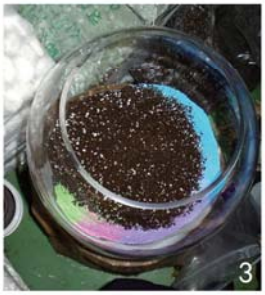
스파티필럼, 푸밀라고무나무,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상록넉줄고사리, 크로톤, 피토니아 '핑크스타', 미니 페페로미아,필레아 글라우카, 아이비, 인삼벤자민(*Ficus ret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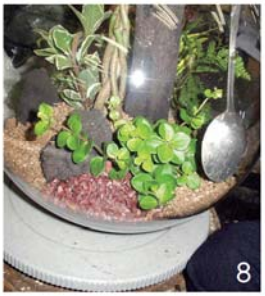
테라리움의 관리

테라리움 내 식물은 너무 빨리 생장하면 금새 볼품이 없어지고 분갈이를 해 주어야 하므로 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생장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 **배치장소**
  - ➡ 주로 광이 잘 드는 거실의 장식장이나 테이블 위에 장식한다.
  - ➡ 직사광선이 바로 드는 곳,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 창가 찬바람이 드는 곳은 피하여 배치한다.
- **물관리**
  - ➡ 용기 안쪽 면에 수분이 말라 보일 때, 배수층으로 이용한 배지에 물이 고일 정도로 미세한 입자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물을 준다.
  - ➡ 배수 구멍이 없는 용기이므로 배양토의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이 배양토로 스며드는 것을 잘 관찰하면서 물을 주어야 한다.
- **용기 내 물이 과하게 들어간 경우**
  - ➡ 그대로 두지 말고 흡수지를 넣어 흡수시켜 과도한 물을 제거해 준다.
- **영양관리**
  - ➡ 식물의 상태를 살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특별관리**
  - ➡ 유리 용기의 내부에 물방울이 맺힐 때에는 수분이 과다하거나 외부온도가 낮기 때문이므로 실내온도를 높이거나 뚜껑을 개방한다.
  - ➡ 용기 내에서 심한 악취가 날 때에는 뚜껑을 개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식물체를 제거한 후 배양토를 다소 건조하게 관리한다.

테라리움 실제 만들어 보기 1





① 배수 구멍이 없는 용기에 굵은 입자 배양토를 이용하여 배수층을 만든다. 정화 기능이 있는 입자 숯을 이용하면 일석이조~

② 입자 숯에 뿌리가 직접 닿지 않도록 배양토로 식재 부위와 구분을 지어 준다.

③ 용기의 앞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숟가락을 유리 벽면쪽으로 하여 색모래층을 만들고, 배양토를 이용하여 색모래층을 고정한다.

④ 키가 큰 중심식물(파키라)을 용기 중앙의 약간 뒷부분으로 중심을 잡는다.

⑤ 중심식물을 기준으로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식물의 얼굴 방향을 정하여 뿌리 부분을 중심식물 쪽으로 모아 심는다.

⑥ 가지런히 정리한 식물소재를 놓고 배양토를 약간씩 다져 주면서 고른다.

⑦ 뿌리를 잘 고정하되 진압하지 않는다. 용기 가장자리에 낮게 심은 밝은 색깔의 식물을 강조하기 위해 검정색 화산석(점경물)과 조화시켜 준다.

⑧ 자연석과 통숯 등의 점경물의 배치가 끝나면 배양토 표면을 이끼나 작은 자갈 등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한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서는 마사토를 색돌보다 많이 사용한다.

⑨ 표면장식을 한 후 압축분무기를 이용하여 식물체의 잎과 뿌리 부분, 용기 안쪽 벽을 깨끗이 씻어 주면서 분무하여 주고, 배수층에 물이 고일만큼 물을 준다.

테라리움 실제 만들어 보기 2

① 식물소재(테이블야자, 비젯티접란, 산호수, 푸밀라고무나무), 유리 용기, 색모래, 배양토, 배수층(입자숯), 마사토, 흰자갈, 하이드로볼, 숟가락, 분무기

point 식물소재는 비슷한 환경조건에서 자라는 식물들끼리 선택, 색모래의 색깔은 계절, 취향 등을 고려한다.

② 입자숯으로 배수층(약 5~6cm)을 깔고, 용기 안쪽에 배양토를 한 숟가락 정도 넣은 후 유리 겉면으로만 색모래를 장식한다.

point 식물소재의 지하부 생육을 위해 색모래와 배양토 용기 하부의 깊이(용기의 1/4 ~1/3)를 결정한다.

③ 분에서 식물을 조심히 꺼내어 뿌리의 흙을 털어 낸 후 지제부 부분을 모아 뿌리를 정리한다.

point 식물소재의 각 형태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볼륨감을 살린다.

④ 색모래 위에 배양토를 한 주먹 정도 넣은 후 가지런히 정리한 식물소재를 놓고 배양토를 약간씩 다져 주면서 고른다.

point 배양토를 너무 진압하지 않는다.

⑤ 배양토로 꼼꼼히 심어 준 후 배양토 표면을 하이드로볼과 마사토로 장식한다.

⑥ ⑤와 마찬가지로 흰자갈로 장식한다.

point 장식하는 소재는 그룹을 지어 주는 것이 시각적으로 효과적이다.

⑦ 용기나 잎에 묻어 있는 배양토는 분무기로 씻어 내리면서 관수하고, 유리 벽면에 물이 젖어 내려가는 정도를 관찰하면서 분무한다.

point 물이 배양토와 색모래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배수층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분무해 준다.

⑧ 완성작품 – 식물소재가 같아도 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느낌이 든다.

토피아리(Topiary)

용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식물을 자르고 다듬어 동물 모양이나 구형, 하트 모양 등의 형태로 만든 것을 토피아리(topiary)라고 한다. 그러나 관엽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이용한 토피아리는 전정하는 것보다는 철사나 철망, 나뭇가지 등으로 원하는 형태의 틀을 만들어 식물이 자라고 있는 용기에 꽂거나, 틀 내부 가장자리를 이끼로 가린 후 그 속에 토양을 채워 식물을 심는다.

토피아리 이용 시 주의할 점

물을 줄 때 배수되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토피아리를 담을 수 있는 적절한 용기가 필요하다. 평면적으로는 하트모양이, 입체적으로는 구형, 원추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토피아리의 형태이며 각종 동물모양은 강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토피아리에 적합한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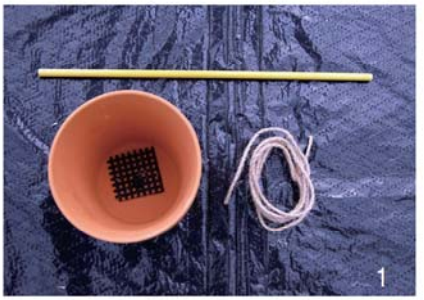
줄기가 기어가고 잎이 촘촘하며 빨리 새순을 내는 식물이 좋다. 줄기가 기어가지는 않으나 잎이 촘촘한 것은 구형의 토피아리를 만들 수 있다. 식물이 자라면서 틀 외부를 덮어 특정한 형태를 나타내도록 유인한다. 또한 대부분의 관엽식물들이 이끼를 배지로 하는 이끼볼 장식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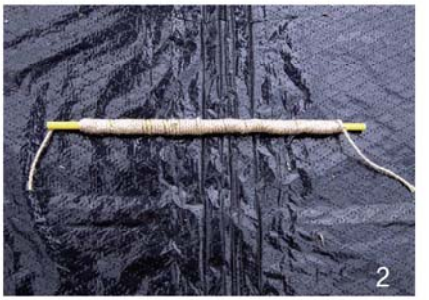
- **이끼 채움 토피아리에 많이 쓰이는 식물**
  ➡ 푸밀라고무나무, 아이비, 러브체인, 뮤렌베키아(트리안) 등과 같은 덩굴성식물

토피아리의 관리

이끼 채움 토피아리 관리는 흙이 없기에 물주기와 습도조절이 관건이다. 자주 물을 주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듬기를 자주 한다. 생장이 활발한 시기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묽은 물비료를 잎에 분무하여 준다. 상한 잎이나 죽은 잎은 즉시 제거하여 준다. 보기에 좋고 공기 통풍을 잘 시키며 벌레의 서식과 곰팡이 억제에 도움을 준다.

토피아리 실제 만들어 보기





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다 : 토분, 플라스틱 막대, 마끈, 식물(뮤렌베키아), 마사토
② 플라스틱 막대에 마끈을 잘 풀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감는다(줄기용).
③ 뮤렌베키아 식물을 화분에서 꺼내어 흙을 조금 털어 낸 다음 새로운 흙을 보충해 준다.
④ 흙 위에 물에 적신 이끼를 싸고 낚시줄로 풀어지지 않게 잘 감아 준다.
⑤ 이끼볼의 아래쪽에 처음에 준비해 둔 막대기를 꽂는다.
⑥ 토분에 마사토를 넣어 막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고 물은 이끼볼에 준다.

착생형 식물의 활용

착생은 생물이 다른 물체에 붙어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착생식물(着生植物, epiphyte)은 식물의 표면이나 노출된 바위 면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로 기근(氣根)과 같은 특별한 기관이 발달해 있는 것도 있는데 빗물이나 수증기 또는 여기에 녹아 있는 영양염류를 뿌리와 잎 표면으로 흡수한다. 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지대에 많다.

착생형 식물디자인에 적합한 식물

- **아나나스류** : 에크메아, 구즈마니아, 네오레겔리아, 브리에세아, 틸란드시아, 크립탄서스 등

에어플랜트

에크메아

틸란드시아

구즈마니아

브리에세아(잉꼬 아나나스)

크립탄서스(*Cryptanthus bivittatus*)

화산석과 상록넉줄고사리

- **난류** : 에피덴드럼, 카틀레야,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 반다, 풍란, 온시디움, 파피오페딜럼 등
- **양치식물** : 넉줄고사리류(*davallia* 속 양치류), 콩짜개덩굴 등
- **기타** : 박쥐란

헤고와 에어플랜트

착생형 식물디자인 이용 시 주의할 점

착생식물의 뿌리를 고정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배지로는 이끼, 헤고, 화산석, 자연석, 나무 기둥 등이 많이 쓰인다.

헤고(*Cyathea spinulosa*)는 중국 남부에서 히말라야로 걸쳐 분포하는 상록 대형 양치식물을 말하고, 배지로 말하는 헤고는 헤고라는 식물의 줄기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가공한 모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이끼도 헤고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 **헤고판** : 「헤고」라고 하는 목본성 양치식물(tree fern)의 줄기를 건조시켜 판 모양에 가공한 것
- **헤고화분** : 헤고의 건조줄기를 화분형태로 가공한 것. 통기성이 뛰어나 착생란이 잘 자란다.
- **헤고봉** : 헤고의 건조줄기를 막대 모양으로 가공한 것. 덩굴성 관엽식물을 이용한다.
- **헤고를 이용한 분식물 장식의 예**

재료 틸란드시아 2, 상록넉줄고사리 '후마타', 크립탄서스, 콩짜개덩굴 2/12(1판), 물뿌리개, 헤고화분 中, 이끼(백색, 녹색), 흰자갈 또는 옥자갈 화산석(小), 스프레이, 대야(헤고, 이끼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유인철사, 전정가위, 팬치 등

접착제를 활용한 자연석에 착생식물 붙이기

풍란을 돌에 붙이기 위해 순간접착제를 이용한다. 접착제는 플라스틱판이나 유리판에 조금 짜 놓고 이쑤시개 끝에 조금씩(3mm 정도) 묻혀서 사용. 접착제는 돌의 모난 부분에만 약간 칠해서 뿌리를 대주면 된다. 접착제는 가능한 휴면기에 있는 뿌리와 끝이 썩은 뿌리만을 이용한다. 생장 중에 있는 뿌리는 작은 상처에도 휴면에 들어간다. 물론 접착제를 사용하기 전에 풍란의 뿌리와 돌에 충분하게 물을 먹여야 하며 풍란의 잎과 뿌리를 사전에 모양이 좋도록 돌 위에다 배치해야 한다.

화산석에 풍란 붙이기

착생형 식물디자인의 관리

대부분의 착생식물은 모두 습도가 높고 따뜻하며 밝은 장소에서 생육이 잘 되기 때문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착생식물이 부착하여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배양토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자연 소재를 이용하므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이용하면 뿌리에 적당한 습기를 공급하는 데 편리하다. 대부분의 착생식물들은 근부의 과습을 싫어하고, 통풍을 좋아하므로 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봄부터 가을까지 창문을 항상 열어 두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며 맑은 날 아침마다 분무해 주어 관리하면 좋다. 비료는 생장이 활발한 봄에서 가을까지 보통 화분재배보다 엷은 농도의 액체비료를 준다.

착생형 식물디자인 실제 만들어 보기 1

① 착생식물을 붙일 나무판, 작은용기(알루미늄 물뿌리개), 낚시줄, 본드를 준비한다.

② 사용할 식물은 건조에 강한 크립탄서스, 러브체인

③ 작은 용기 속에 약간의 배수층으로 작은 맥반석을 깔아 주고 배양토를 넣는다.

④ 러브체인은 2줄기 정도, 알뿌리를 이끼로 감싼 다음 심어 준다.

⑤ 크립탄서스는 이끼 안에 배양토와 약간의 비료를 넣은 후 라피아로 마무리 하고 순간접착제로 철사 고리를 식물을 놓을 자리에 붙인 후 그 위에 고정한다.

⑥ 완성 후 충분히 물을 뿌려 준 다음 문이나 벽에 걸어 장식할 수 있다.

착생형 식물디자인 실제 만들어 보기 2

1

2

3

① 식물소재(풍란, 콩짜개덩굴), 어항 유리용기, 맥반석, 화산석, 마사토, 흰자갈, 이끼

point 물을 이용하므로 마사토, 화산석, 흰자갈 등을 씻어 놓는다.

② 화산석을 물에 충분히 적신 후 풍란의 상한 뿌리 위주로 2~3군데 돌과 만나는 부분에 접착제를 물방울 모양으로 묻힌 후 살짝 손으로 대 준다.

point 본드를 적게 칠할수록 좋겠죠. 고정시키기만 하면 되니 화산석의 각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화산석에 풍란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재료들을 모두 깨끗이 씻어 놓는다.

④ 맥반석을 가장 아래에 깐다. 유리 용기이므로 조심스럽게 넣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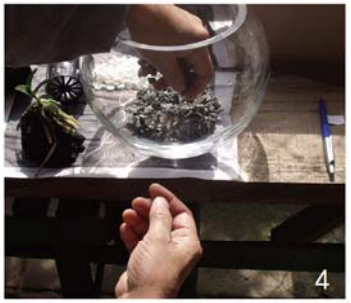
⑤ 맥반석 깔아 놓은 위치에 풍란을 붙인 화산석을 안치시킨다. 끄떡거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⑥ 콩짜개덩굴을 적당한 크기로 두 손바닥으로 뜯는다.

point 가위로 자르면 인위적이므로 손바닥으로 자연스럽게~

⑦ 가장 윗 표면처리는 마사토, 흰자갈, 작은 화산석, 이끼, 콩짜개덩굴로 마무리해 준다. 자연스러운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암석과 표면의 높낮이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point 콩짜개덩굴은 물에 계속 고여 있으면 녹으므로 약간 높은 곳에 걸쳐 준다. 화산석이 빨아들인 수분으로 살게 한다.


4

5

7

6

수경장식(Hydroculture)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뿌리를 넣어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무기양분을 인위적으로 공급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수경재배(水耕栽培: hydroculture) 또는 물재배(water culture)라 한다.

- 수경장식의 장점
  - ➡ 용기 하부로 물이 빠질 염려가 없어 실내 어떤 곳에도 배치할 수 있고, 관리가 편하다.
  - ➡ 생활공간 내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해 환경을 아름답게 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 ➡ 여름철 맑고 시원한 느낌을 더해 주고, 투명한 용기 내 식물의 청결감이 좋다.
  - ➡ 겨울철 건조한 실내 습도를 쾌적하게 한다.
  - ➡ 식물의 줄기나 잎뿐만 아니라 지하부 뿌리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수경장식 이용 시 주의할 점

- 토양에서 자라던 관엽식물을 수경으로 이용하려면 뿌리를 깨끗이 씻어 용기에 담는다.
- 일반적으로 식물체가 어리고 빠른 식생력을 가진 경우나 성장력이 강한 잎(sturdy leaves)을 가진 식물은 화분에서 빼내어 수경재배로 옮겨도 쉽게 생육 활착하지만 식물체가 크거나 꽃을 피우는 식물체의 경우 수경재배로 옮기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수경 배지 내 물을 채우는 높이를 가능한 지제부 아랫부분으로 뿌리 부위만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모든 배지 및 점경물은 물에 깨끗이 씻어 뿌연 물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통숯은 검은 가루가 떨어지므로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씻어야 한다.

수경장식에 적합한 식물

- 줄기의 일부분을 잘라 물에 담그기만 해도 곧 뿌리가 생기는 식물
  - ➡ 싱고니움, 스킨답서스와 같은 천남성과 식물, 자주달개비, 트라데스칸티아 등의 닭의장풀과 식물, 조란, 시페루스 등
- 포복줄기에 달린 어린 식물체 뿌리 부분을 물에 담그면 곧 뿌리가 자란다.
  - ➡ 접란 등
- **알뿌리식물**
  - ➡ 초봄에 히야신스나 수선화, 아마릴리스와 같은 구근류의 알뿌리 밑부분을 물 속에 담가 광이 비치는 창가에 두면 향기로운 꽃을 관상할 수 있다.
- 실내식물의 삽수를 채취하여 물에서 뿌리를 발생시킨 결과, 식물의 뿌리 발생과 생육이 양호했다고 보고된 식물은 다음과 같고, 이외의 실내 관엽식물 대부분 수경장식이 가능하다.
  - ➡ 필레아 카디에레이, 아이비, 스킨답서스, 싱고니움, 필로덴드론, 접란,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클레로덴드론, 제브리나, 호야, 벤자민고무나무, 페페로미아, 임파티엔스, 아프리칸 바이올렛, 코레우스, 쉐플레라, 기누라, 안수리움, 아글라오네마 등

수경장식의 관리

- **배치장소**
  - ➡ 실내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광이 드는 곳에 배치한다. 인공광 하에서도 가능하다.
- **물관리**
  - ➡ 용기 내 심은 식물체의 지제부 아래, 뿌리 부분에 맞추어 물을 채운다.
- **안개발생기(연무기)의 사용**
  - ➡ 안개발생기는 떨림판과 부착된 센서 부위에서 수위를 감지하여 안개를 뿜어 준다. 안개발생기 떨림판은 3,000 ~ 5,000시간 작동하는 소모품으로 떨림판만 교환할 수 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센서 부위가 물에 잠겨 있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겨울철 저온 주의**
  - ➡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거나 찬바람이 드는 창가와 같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장소의 경우 물속에 잠겨 있는 뿌리 부분이 저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하는 경우가 많다.

수경장식 실제 만들어 보기 – 식물체 지지, 정화, 장식 기능 배지 및 안개발생기

맥반석

통숯

옥자갈

화산석

마사

연무기(안개발생기)

1

2

3

4

① 용기 중심에 마사를 약간 넣은 후 중심식물인 알로카시아를 배치한다. 뿌리 부분을 잘 펴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화산석으로 살짝 기대어 준다.
② 식재하기 전 식물마다 생김새를 살펴 얼굴이 앞으로 오도록 한다. 중심식물인 알로카시아와 대각선 오른쪽 전면으로 아글라오네마를 배치한다.
③ 정면만이 아닌 전후좌우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중심인 알로카시아를 기준으로 앞 뒤로 덩굴성 페페로미아와 키가 낮은 드라세나류를 배치하여 원근감이 생기도록 한다.
④ 검정색 통숯과 화산석이 아름다운 점경물이 될 수 있다. 용기 중심에서 식물의 얼굴이 나오는 듯하게 배치한다. 콩짜개덩굴은 잠기지 않도록 화산석 윗부분에 비스듬하게 하여 고정시킨다.
⑤ 식물을 배치한 후 맥반석 및 마사로 뿌리를 고정한다. 처음엔 입자가 큰 배양토로 고정한 후, 입자가 작은 배양토로 꼼꼼히 뿌리를 고정한다. 뿌리가 배양토로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⑥ 용기 중심쪽으로 연무기를 배치하고, 전기선이 앞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정한다. 옥자갈이나 흰자갈, 맥반석 등으로 같은 배양토끼리 모아 표면을 장식하고, 물을 채운 후 연무기를 작동시킨다.
⑦ 완성 작품 옆모습
⑧ 완성 작품 전체 모습

5

6

7

8

컨테이너 가든(Container garden)

실외에서는 넓은 공간이 삭막하지 않도록 분식물 장식이 들어가는 반면 실내에서는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식물 장식이 이용된다. 거리나 공공건물의 대형 컨테이너에 식재할 수도 있고 작은 커피잔에 식물을 심어 식탁 위에 올려 놓을 수도 있으므로 정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컨테이너 가든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식물 장식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컨테이너 정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재방법은 몇 가지 관엽식물들과 한두 가지 꽃 피는 식물을 심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패턴은 용기의 뒤쪽에 크고 높이가 있는 식물을 심고, 가운데는 몇 가지 관목형 식물, 그리고 가장 앞쪽은 늘어지는 식물을 심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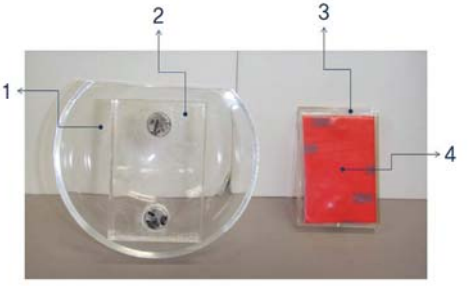
컨테이너 가든 실제 만들어 보기

① 컨테이너 가든을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장소에 알맞은 크기와 디자인을 결정한다.
② 배수구로 흙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화분망을 깔고 아래쪽에는 굵은 난석이나 자갈, 위쪽에는 원예용 배합토를 60% 정도 채운다.
③ 중간에는 다소 키가 큰 초롱꽃을 심는다.
④ 가장자리에는 뉴기니아 봉선화를 모아 심는다.
⑤ 뉴기니아 봉선화 사이에 늘어지는 아이비 잎을 넣어 주어 장식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다. 식물 중간 중간이 비지 않도록 배합토와 이끼로 채워 준다.
⑥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충분히 관수하고 바로 직사광선에 놓지 말고 며칠 동안 반그늘에서 순화시킨다.

부착형 실내 정원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필자의 경우, 화분 배수구멍으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전자피아노를 고장 낸 적이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 식물을 관리할 때 식물에 충분히 물을 공급하고, 과도한 물을 충분히 제거한 후 제자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특히 중대형 화분인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분 물구멍으로 빠져 나온 물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하면 생활공간에 많은 식물을 도입할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 고민이 많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부착형 화분을 활용한 실내정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착형 화분의 특징



1 : 상부가 개구된 투명한 합성수지 재질의 반달 형상의 용기
2 : 상기 용기의 배면에 설치 고정되는 용기 자석 부착판
3 : 철에 부착되는 자석 부착판
4 : 스탠드, 유리, 거울용 강력 양면 접착제

- 부착형 화분의 용기가 투명하여 기업 이미지 광고 시 투명성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자연스런 녹색식물의 푸름과 더불어 인간, 환경,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용기 안쪽으로 포장지를 활용한 디자인이 가능하여 투명한 용기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부착형 화분의 적용

- 부착형 화분을 활용한 사무실(그린 오피스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 사무기기 등으로 비좁은 사무 공간에 기존의 파티션을 활용하여 맞춤형 실내정원을 디자인 할 수 있다.

- 부착형 화분을 활용한 파티션 정원

파티션과 실내정원이 결합된 새로운 정원모델은 많은 양의 녹색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이름다운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부착형 화분의 다양한 활용

부착형 화분에 대한 글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다. 부착형 화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는 많을 테지만, 실내 환경과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부착형 화분 관리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착형 화분에 이용 가능한 실내 식물

실내 식물을 많이 다루어 보았지만, 부착형 화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아이비가 여름철 고온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되었다. 물관리가 쉽지 않은 초보자라면, 작은 자연석을 이용한 개운죽과 드라세나 산데리아나를, 건조에 강한 다육식물 종류의 호야, 벽어연, 미파, 십이지권 등을 추천한다.

개운죽
(물에 잘 견딤)

녹영
(초보자는 좀 어려움)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물에 잘 견딤)

마삭줄류
(물을 자주 요구함)

호야
(실내에도 잘 견디는 다육식물)

벽어연
(실내에도 잘 견디는 다육식물)

미파
(실내에도 잘 견디는 다육식물)

십이지권
(실내에도 잘 견디는 다육식물)

부착형 화분 어떻게 만드나요?

❶ 부착형 용기, 자석 부착판, 식재도구

❷ 배지 (다공질, 가는 입자)

❸ 실내 식물 (덩굴성 식물)

❹ 식물을 분흙에서 빼 낸다.

❺ 지상부 줄기를 기준으로 그룹을 지어 나눈다.

❻ 8자 모양으로 손을 돌리며 뿌리를 풀어 흙을 털어 낸다.

❼ 지제부를 기준으로 위에 난 뿌리를 잘라 준다.

❽ 식물마다 지제부를 모아 준다.

❾ 지제부를 모은 후 가장 예쁜 얼굴을 만들어 준다.

⑩ 용기 크기에 맞추어 적당히 뿌리를 자른다.

⑪ 뿌리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용기 안쪽으로 넣고, 배지를 넣어 배수층 부분으로 1cm 정도 채워 준다.

⑫ 배수층을 채운 후, 뿌리 사이마다 배지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도구를 돌려가며 빈 곳을 채운다.
* 콕콕 찔러 뿌리를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⑬ 잡고 있던 지제부에 힘을 풀며 식물체의 얼굴을 만들며 배지를 채운다.

⑭ 주둥이가 긴 물통을 이용하여 배지가 충분히 물을 머금게 물을 준다.

⑮ 배지가 물을 머금은 후,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고, 기울여 고인 물을 제거하여 용기 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한다.

부착형 화분의 관리요령

자석 부착판 붙이기 자석의 힘이 세어 자석 부착판이나 철면에 붙일 때 충격으로 배지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탈부착 한다.

❶ 자석을 붙이기 전

❷ 자석 한 개만 붙임

❸ 자석판을 돌림

❹ 자석판 두개 붙임

물 주는 방법 부착형 화분의 크기가 작으므로 입구가 긴 형태의 물뿌리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아침마다 분무기로 공중습도를 높여 주면 식물의 생육에 좋다.

물 주는 시점은 투명 용기 내 배지가 용기 높이의 1/2 정도 말랐을 때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배지가 충분히 물을 머금은 후 용기 내에 남아 있는 물은 따라 버린다.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이므로 물이 고여 있는 경우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 할 수 있다.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물을 제대로 줄기와 잎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시드는 현상을 보이므로, 꼭 배지의 수분함량을 점검해야 한다.

*다육식물 식재 시에는 일주일 정도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

배지의 수분이 마름

배지의 수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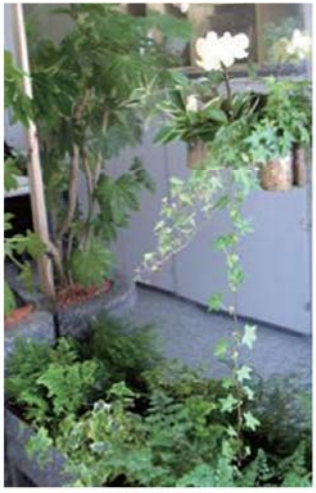
관수용 물뿌리개

습도 조절용 분무기

부착형 화분의 활용

안내형 정원

데이블형 정원


거울형 정원

부착형 화분의 효과

부착형 화분을 책상 옆 파티션에 부착하여 잘 돌보고 키우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VDT 증후군을 예방한다. 모니터에서 눈을 잠깐 떼서 이 식물을 보면, 눈 주위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줄여 준다.

둘째,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보통 관엽식물 잎에서 1초당 5~10㎍/㎠ 정도의 수분을 방출하므로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 실내의 이산화탄소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산소와 음이온을 방출한다.

이제, 부착형 화분을 가까이에서 즐기십시오!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착형 화분의 또 다른 변신 '꽃병'

계절을 알리는 꽃을 꺾어 꽃병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분갈이

분갈이가 필요한 때와 분갈이 시기는?

Q 분갈이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A 성장이 왕성하여 1년마다 사는 집이 비좁아지는 식물은 매년 봄에, 2년 정도 되어야 새집이 필요한 식물은 2년마다, 성장이 아주 느린 식물은 필요한 시기에 해 준다.

Q 분갈이에 가장 좋은 시기는?

A 식물도 동물처럼 휴식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식물은 한겨울을 휴식기로 선택한다.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 활동을 시작하므로 아직 꽃망울이 맺히기 전에 분갈이가 필요한 식물들은 분갈이를 한다. 그러나 너무 이른 봄보다는 좀 더 따뜻해졌을 때(4~5월경)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식물들도 많다.

Q 분갈이가 필요한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분갈이가 필요할 때 식물들은 열심히 신호를 보낸다. 뿌리가 배수공을 빠져 나와 소리를 지르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또한 물을 줄 때마다 이미 너무 커 버려 작은 화분이 자꾸 넘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식물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실내정원의 관리방법

①화분이 작아서 식물체 뿌리가 위로 밀려 올라온다.
②식물체의 지상부가 너무 커서 불안정하고 수분이 빨리 마른다.
③식물체에 비해 화분이 너무 작아 건전한 생육을 할 수 없다.

분갈이에 필요한 도구와 용기의 선택

Q 도구

A 새롭게 옮겨 심을 화분, 모종삽, 막대기, 물뿌리개, 배양토, 화분망 등

Q 용기

A 식물에게 용기의 선택은 사람에게 살 집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미관상 보기에만 좋은 집이 살기 편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용기는 화분 안에 들어갈 흙의 온도와 수분의 유지, 조절에도 관여하며 식물을 더욱 아름답게,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Q 용기와 식물의 비율

A 어떤 디자인이든 황금비율(5:8 ⇒ 약 2:3)을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그러나 식물은 드러나는 식물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상태도 고려해서 용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뿌리가 깊게 뻗어 내리는 식물의 경우에는 다소 긴 용기를, 뿌리가 얕은 식물의 경우에는 다소 얕은 용기를 사용해도 괜찮다.

Q 용기(화분)의 선택

A 화분의 종류는 크기와 형태, 재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용기의 종류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플라스틱(Plastics)**

  장점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 형태, 색깔을 연출할 수 있고, 유리나 점토, 금속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다. 유리와 황동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들과 곁들여 제작할 수 있다.

  단점 가볍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다. 통기성이 없어서 식물 뿌리가 과습의 상태에서 빨리 회복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플라스틱

토분

- **토분(Terracotta)**

  장점 테라코타라고도 하며 보존성이 우수하다. 자체의 질감, 색을 살린 제품이 많아 용기들 중 가장 자연스러우며,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단점 화분을 통해 수분의 증산이 활발하여 건조가 빠르며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다.

FRP

-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장점 유리섬유(Fiber glass)를 주 보강제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를 함침(含浸) 가공한 복합구조제로서 가볍고, 철보다 강한 내식, 내열 및 내부식성이 우수한 반영구적인 소재로 매우 큰 강도를 가지며 화기 제조업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소재이다. 분수대, 동상, 인조바위, 인조폭포, 조경관계, 베란다용기, 형상조각 등 주로 조각품에 이용되고 있다.

  단점 우수한 내구성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지만 자연소재만큼 환경친화적이지는 않다.

유리

- **유리(Glass)**

  장점 투명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광선을 굴절시켜 식물성장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재료의 특성, 기능적인 형태미로 공예적 가치를 높이며, 비교적 값이 싸고, 형태, 크기,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점 운반 시 쉽게 깨지며 수경용 용기로 사용 시 물때 자국이 남는다.

• **세라믹(Ceramics)**

원토(점토)를 풍화(외지에 2~3개월 방치), 분취(암석질 원료를 점토와 분리시키는 작업), 침전(유기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점토를 정제하는 작업)의 과정을 거쳐 만들며, 점토에 배합제를 혼합시켜 재질을 균질화한 것으로 molding(성형), 건조, 유약처리, 장식기법에 따라 굽기 전후에 바르는 유약은, 표면마감과 질감을 다양하게 만든다.

장점 색상과 형태가 고급스럽다.

단점 가격이 비싸다.

세라믹

분갈이 용토의 특성과 적정한 배합조건

Q 어떤 흙을 사용해야 하는가?

A 식물을 잘 키우는 요령은 그 식물의 원산지를 아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식물의 원래 고향이 열대인지, 고산지대인지 온대인지, 한대인지 등을 알고 나면 그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배양토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지역이 원산지인 대부분의 실내 관엽식물들은 다소 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광이 부족해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이 때는 용토로 습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피트모스 등을 많이 섞어 쓰면 좋다. 또한 사막이 고향인 대부분의 선인상과 다육식물 등은 배수가 잘 되어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래나 펄라이트 등을 많이 쓰면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기 쉽다. 그 외 온대식물들은 배수와 습도가 동시에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은 양의 비율로 배양토를 만들면 된다.

혼합 인공 배양 상토

피트모스 (인공배양토)

펄라이트 (인공배양토)

난 재배용 경석 (대립형)

마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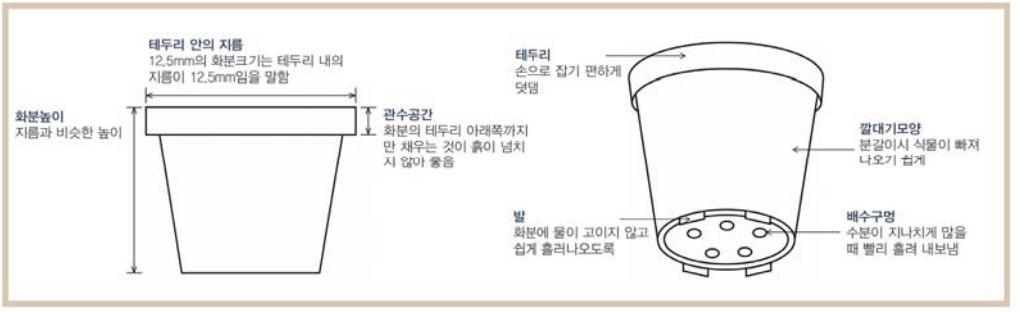
하이드로볼

Q 산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흙도 가능한가? 아니면, 꼭 구입한 토양만 써야 하는가?

A 일반 가정에서 용토(흙)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인공배양토를 구입하여 분갈이 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다. 원예에 관심이 많아 직접 분갈이를 하는 주부들의 경우, 주로 화단의 흙, 산흙, 밭흙을 이용하여 분갈이를 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흙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더러는 거름기가 풍부한 흙을 구할 수도 있지만 무게가 인공배양토에 비해 많이 나가 큰 화분의 경우는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하중이 발생되는 결점이 있다. 화원에서 판매하는 흙은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부엽, 밭흙 등이 골고루 섞여져 판매되며 가볍고 다양한 성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Q 분갈이 시 흙의 양은?

A 화분 높이의 80~90% 정도 흙을 채우면 좋다. 흙이 너무 많으면 물주기(관수) 시에 흙이 흘러 넘쳐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며, 너무 적은 흙은 뿌리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토대를 줄이므로 식물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갈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Q 화분망

A 화분 아래쪽의 배수공의 크기에 맞게 플라스틱 그물망(화원에서 판매, 아주 저렴)을 자르거나, 양파주머니 혹은 망사천 등을 이용해서 배수공으로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Q 배수층

A 화분의 아래쪽에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기 쉬우므로 아래쪽에는 배수가 잘 되는 다소 입자가 굵은 돌을 깔아 준다. 화분이 큰 경우에는 자갈의 굵기가 더 굵어지며 작은 화분의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작은 돌로 배수층을 만든다. 배수층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의 경우보다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의 경우 물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비율을 둔다.

Q 용기가 높은 경우

A 식물과 잘 어울릴 것 같아 고른 용기가 너무 높아서 그 속을 흙으로 다 채우면 무겁기도 하고 흙도 많이 들어 불편할 경우, 아래쪽의 일정 부분을 가벼운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는 부위를 고려해서 뿌리에 직접 스티로폼이 닫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식물을 행복하게 키우는 비결이다.

Q 화분 용기의 흙 높이

A 화분 용기 높이에 따라 1~4cm 정도 여유 공간을 두어 물을 줄 때 흙이 바깥으로 튀지 않게 하고, 물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너무 높아요

적당해요

Q 토양표면 처리방법 (연구소 결과 자료 인용)

A 화원에서 식물을 심어 판매하는 화분들을 보면 화분의 위쪽이 여러 가지 재료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옥돌이나, 색돌, 바크(나무껍질), 자연이끼, 인조이끼, 지피식물, 장식인형 등 … 물론 놓이는 장소나 구매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판매되겠지만 연구소의 실험결과를 보면, 실내의 포름알데히드 제거를 위해서는 모래 중에서는 가는 모래보다 굵은 모래가 우수하였고, 식물체 중에서는 살아 있는 식물체에 의한 지피가 우수하였다.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할 때 너무 원색적인 장식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포름알데히드 제거능력

가는 모래 < 굵은 모래 < 마른 이끼 < 셀라기넬라(살아 있음)

분갈이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Q 분갈이를 한 후 영양제를 공급해야 하나? 아니면 수분공급만으로 되나?

A 가끔 공중걸이 등의 작품을 만들 때는 배양토 위에 어느 정도의 비료를 뿌린 후 다시 흙을 덮고 식물을 심지만, 가정에서 분갈이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화분의 크기를 키우기 보다는 식물체의 뿌리를 더 작게 정리해서 그 화분에 다시 심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식물의 뿌리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회복기를 거쳐야 하므로 바로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뿌리가 잘 안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비료를 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Q 일반적으로 화분에 물을 줄 때의 양과 빈도는?

A 분갈이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 주는 빈도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놓여지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물을 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분갈이 직후에 베란다의 광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 두면 식물이 뿌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광합성을 부지런히 하여야 하므로 식물체에 무리가 온다. 그러므로 어떠한 식물이든지 분갈이 후에는 1주일 정도 반그늘에서 식물이 휴식을 하도록 한 후에 광이 드는 곳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식물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물 관리

물 주는 방법

- **물 주는 가장 좋은 적기**
  - ➡ 식물의 잎끝이 약간 처질 때
  - ➡ 식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보이므로, 보통 화분의 흙 표면이 바싹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준다.
- **물뿌리개 사용방법**
  - ➡ 물뿌리개 수압이 너무 센 경우, 화분용토의 표면이 굳어져서 공기나 물의 전달을 나쁘게 하므로 가는 물줄기의 물뿌리개를 사용한다.
  - ➡ 특히 꽃이 피어 있는 경우,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세심하게~ 뿌리 부분으로 !!
  - ➡ 대부분의 관엽식물은 위에서 비가 오듯 전체적으로 관수한다.
- **저면관수**
  - ➡ 분토를 망가뜨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통이나 대야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 분을 넣어 분바닥에서 물을 흡수하게 하여 분토의 상부에까지 물이 올라가면 꺼내어 물이 빠지게 하는 것이다.
- **물 주는 횟수와 정도?**
  - ➡ 물은 한번에 듬뿍 주어 토양에 물이 전체적으로 가도록 한다. 조금씩 자주 관수하면 물이 토양에 고르게 스며들지 않아 화분 전체에 뿌리가 골고루 생육하지 못하게 된다.

압축분무기

호스 연결용 살수기

응급처치

식물체가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양동이에 물을 화분 높이 이상으로 채우고 화분을 통째로 담가 저면관수 하는 방법도 있다.

물 주는 시점

- 식물의 잎은 물이 없어 건조한 경우, 물이 많아 뿌리가 상한 경우에 잎으로 시드는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분의 흙을 만져 보고 물 주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물을 부족한 듯 주어야 한다.

화분 표면 흙이 말랐을 때

화분 1~2cm 깊이 흙이 말랐을 때

관수 문제의 원인과 대책

- 물이 곧장 빠져버림
  - ➡ 원인: 배양토의 수축으로 화분 안쪽 면과 배양토 사이 공간이 생김
  - ➡ 대책: 바스켓이나 욕조에 배양토 높이 수준으로 물을 채워 충분히 물을 빨아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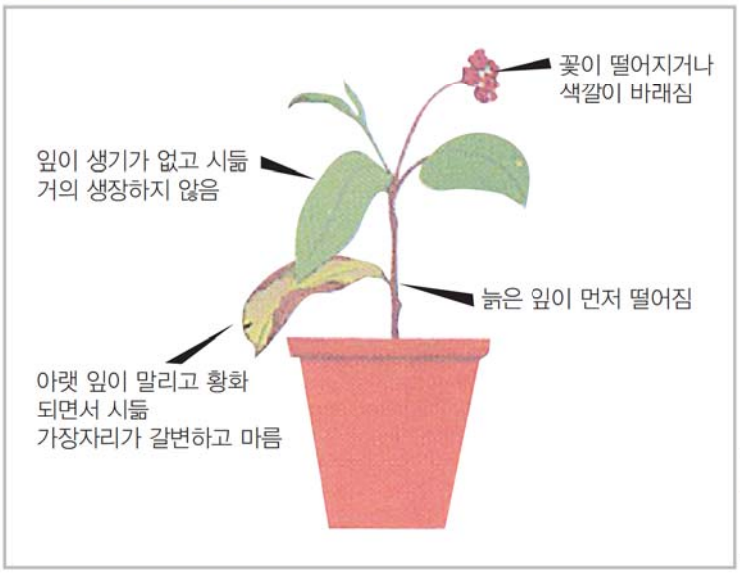
충분히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

- 물이 흡수되지 않음
  - ➡ 원인: 화분 표면이 딱딱해짐
  - ➡ 대책: 포크나 미니 삽으로 화분 표면을 콕콕 찌른 후, 바스켓이나 욕조에 배양토 높이 수준으로 물을 채워 충분히 물을 빨아들임

-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 물이 식물의 잎에 닿으면 물방울이 렌즈처럼 빛을 모아 잎을 태울 수 있음
  - ➡ 대책: 강한 광선이 쬐는 시간 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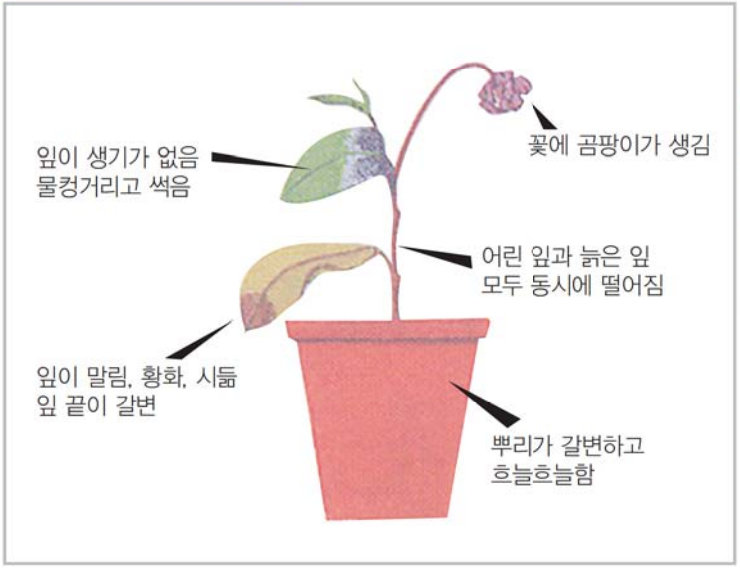
주둥이가 길고 좁은 물뿌리개 이용

위험한 징후–관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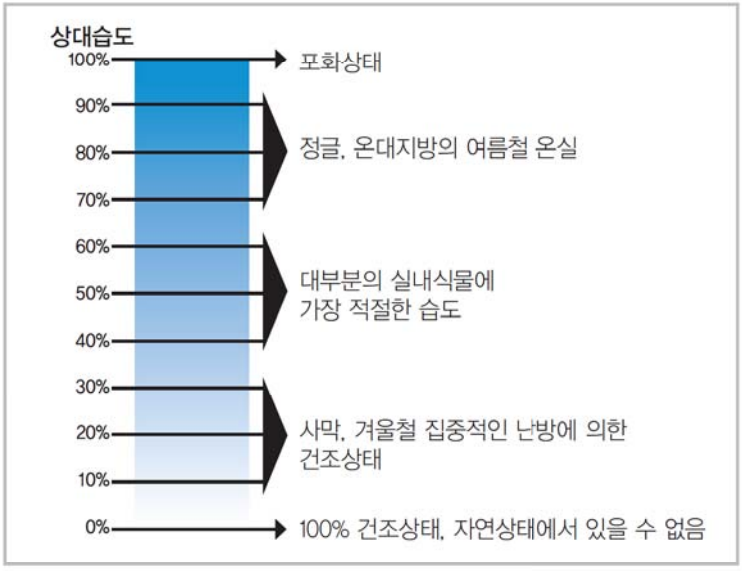
물을 무척 좋아하는 뉴기니아 임파티엔스는 봄철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심하게 시들다가 물을 주면 한 시간만에 회복함

위험한 징후–관수 과다



겨울철 저온기, 과다한 관수에 의한 물러짐

실내식물을 위한 습도 조절 방법



분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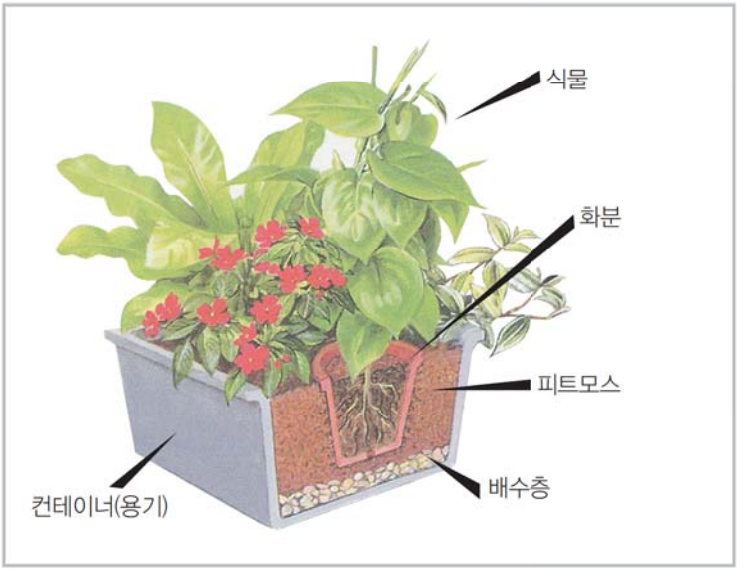
모아심기

이중화분

적정 습도 유지–스프레이 이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주면 적정 습도가 유지되어, 식물이 건강해져서 병해충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용기를 이용한 화분 모아심기(Grouping)



수경형 정원

식물, 자재, 관리용품 구할 수 있는 곳

*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02-579-8100
  3호선 양재역 7번출구, 마을버스 / 도 · 소매 (화, 금 관엽류 경매)

* **남서울 화훼공판장** ☎02-502-6835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 식물은 소매보다 주로 도매, 용기 등은 소매로 판매

* **구파발 화훼단지** ☎02-356-0663
  구파발역에서 북한산쪽으로 창릉천 다리를 끼고 좌회전 / 북한산 등산 후 이용 (연중무휴)

* **서서울 화훼유통** ☎ 02-2614-9004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 다양한 자재와 식물에 관련된 종합적인 판매

직접 실내정원을 만들고 꾸미면서 자연을 배워 보세요!

분식물 장식용 이용식물

찾아보기

가울테리아(파스향나무) …… 67
개운죽 …… 67
골드크레스트 윌마 …… 68
관음죽 …… 68
구근베고니아 …… 69
구즈마니아 …… 69
군자란 …… 70
극락조화 …… 70
금전수 …… 71
기누라 …… 71
꽃치자 …… 72
나도풍란 …… 72
남천 …… 73
네오레겔리아 …… 73
네펜데스 …… 74
노랑새우풀 …… 74
녹영 …… 75
뉴기니아봉선화 …… 75
대만고무나무 판다 …… 76
덩굴성 미니장미 …… 76
덴파레 …… 77
드라세나 레인보우 …… 77
드라세나 마지나타 …… 78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 78
드라세나 송오브인디아 …… 79
드라세나 송오브자마이카 …… 79
드라세나 와넥키 …… 80
드라세나 자바 …… 80
드라세나 콤팩타 …… 81
디펜바키아 마리안느 …… 81
디펜바키아 트로픽스노우 …… 82
떡갈잎고무나무 …… 82
란타나 …… 83
러브체인 …… 83
마다가스카르자스민 …… 84
마삭술 …… 84
만년청 …… 85
만데빌라 …… 85
멕시코소철 …… 86
몬스테라 …… 86
무늬관음죽 …… 87
무늬둥근잎아랄리아 …… 87
무늬벤자민고무나무 …… 88
무늬벵갈고무나무 …… 88
무늬산호수 …… 89
무늬자주만년초 …… 89
무늬접란 …… 90
무늬털머위 …… 90
무늬팻츠헤데라 …… 91
무스카리 …… 91
뮤렌베키아 …… 92
박쥐란 …… 92
반다 …… 93
백량금 …… 93
백정화 …… 94
백화등 …… 94
벤자민고무나무 …… 95
보스톤고사리 …… 95
부겐빌레아 …… 96
브라이달 베일 …… 96
브레이니아 …… 97
브룬펠시아 …… 97
브리에세아 …… 98
비젯티접란 …… 98
산세베리이 히니 …… 99
산세베리아 …… 99
산호수 …… 100
삼색데코라고무나무 …… 100
상록넉줄고사리 …… 101
세네시오 라디칸스 …… 101
셀라기넬라 왓소니아나 …… 102
소철 …… 102
솔레이롤리아 …… 103
수박페페로미아 …… 103
수박필레아 …… 104
수염 틸란드시아 …… 104
쉐플레라 악티노필라 …… 105
쉐플레라(홍콩야자) …… 105
스킨답서스 …… 106
스파티필럼 …… 106
시계초 …… 107
심비디움 …… 107
아글라오네마 …… 108
아디안텀 …… 108
아라우카리아 …… 109
아레카야자(황야자) …… 109
아스파라거스 세타세우스 …… 110
아스플레니움 …… 110
아이비 …… 111
아프리칸바이올렛 …… 111
안수리움 …… 112
알로카시아 …… 112
애니시다(금작화) …… 113
야래향 …… 113
얼룩식나무 …… 114
에리카 …… 114
에스키난서스 …… 115
오색마삭줄 …… 115
옥살리스 디페이 …… 116
온시디움 …… 116
유제니아 …… 117
유카 …… 117
익소라 …… 118
자금우 …… 118
자스민 …… 119
제라니움 …… 119
제브리나 …… 120
좀마삭줄 …… 120
종려방동사니 …… 121
줄필레아 …… 121
카틀레야 …… 122
칼라데아 인시그니스 …… 122
켄챠야지 …… 123
코르딜리네 레드에지 …… 123
콜레우스 …… 124
크로커스 …… 124
크로톤 …… 125
크립탄서스 …… 125
클레로덴드럼 …… 126
클레마티스 …… 126
타제타수선화 …… 127
테이블야자 …… 127
트라데스칸티아 …… 128
틸란드시아 시아네아 …… 128
파키라 …… 129
파피오페딜룸 …… 129
팔레놉시스 …… 130
팔손이나무 …… 130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 131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 …… 131
푸밀라고무나무 …… 132
프테리스 …… 132
피토니아 핑크스타 …… 133
피토니아 …… 133
필레아 글라우카 …… 134
하트 펀 …… 134
해마리아 …… 135
행운목 …… 135
호야 트리칼라 …… 136
황금마삭줄 …… 136
후크시아 …… 137
히아신스 …… 137
히포에스테스 …… 138

가울테리아(파스향나무)

- 학명 : *Gaultheria procumbens*
- 영명 : eastern teaberry
- 특성 : 관엽, 관화, 관실
- 원산지 : 아시아, 아메리카
- 이용장소 : 실내정원, 화분
- 온도 : 5~20℃
- 물주기 : 보통관수, 겉흙이 완전히 마른 후 흠뻑 준다.
- 번식 : 분주, 삽목

TIP

진달래과의 작은 관목으로 척박한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며, 키는 20cm 정도로 포복형이다. 암석정원에 잘 어울린다.

개운죽

- 학명 : *Dracaena sanderiana* 'Virescens', 용설란과
- 영명 : Sander's dracaena
- 특성 : 관엽, 관목
- 원산지 : 서부 아프리카
- 이용장소 : 주로 물꽂이, 화분
- 온도 : 15℃ 이상
- 물주기 : 물가꾸기의 경우 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갈아 준다.
- 번식 : 삽목

TIP

보통 연필처럼 생긴 나무토막의 끝에 뾰족한 녹색의 잎이 나오며, 직사광선 하에서는 잎이 타므로 주의한다.

골드크레스트 윌마

- 학명 : *Cupressus macrocarpa* 'Goldcrest Wilma', 측백나무과
- 영명 : goldcrest monterey cypress
- 특성 : 노란 빛을 띤 연한 녹색의 잎을 가진 침엽수
- 원산지 : 캘리포니아
- 이용장소 : 실내 빛이 잘 드는 장소
- 온도 : 16~25℃가 적합하며, 겨울철 5~10℃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충분히 관수 관리한다.
- 번식 : 삽목, 접목

TIP

노지에 심을 때는 비옥한 사질양토가 적합하며, 공중습도가 보통인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적절하다.

관음죽

- 학명 : *Rhapis excelsa*, 야자과
- 영명 : bamboo palm, large lady palm
- 특성 : 중국 남부의 관음신에서 자생하는 대나무 같은 식물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부채살처럼 찢어진 잎을 가진 야자류이다.
- 원산지 : 중국 남부, 일본
- 이용장소 : 실내의 빛이 잘 드는 곳으로 여름의 강한 직사광은 피한다.
- 온도 : 10~22℃의 따뜻한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남부의 경우, 잎이 다소 상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옥외에서도 월동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 이상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4~10월까지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규칙적으로 분흙의 표면이 마른 후에 물을 흠뻑 주며, 과습은 뿌리썩음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 번식 : 실생

TIP

잎의 황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을 피해 2년마다 이른 봄에 분갈이 해 준다.

구근베고니아

- 학명 : *Begonia tuberhybrida,* 베고니아과
- 영명 : tuberous begonia hybrids
- 특성 : 잎의 앞면은 녹색, 뒷면은 붉은색이며 잎의 모양은 변형된 하트 모양이 많다. 꽃의 색상은 핑크, 빨강 ,노랑, 흰색, 복합색, 크림색 등이며, 꽃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한 뭉치의 꽃 속에 암수꽃이 함께 피는데 수컷의 꽃이 더욱 크다.
- 원산지 : 볼리비아와 페루의 안데스산맥 해발 3,000~3,800m 고산지원예종 2,500여 품종이 알려져 있다.
- 이용장소 : 실내 화분
- 온도 : 20~25℃
- 물주기 :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수하며 특히 분무에 신경 써서 주위의 습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번식 : 분주, 삽목

TIP

대표적인 장일식물로 14시간 이상의 일장 하에서만 잎과 꽃눈이 분화하고 생육이 계속되고, 단일(10월~2월)에 의해 휴면이 유도된다.

구즈마니아

- 학명 : *Guzmania,* 파인애플과
- 특성 : 잎 가운데에서 시원하게 쭉 뻗은 붉은 꽃대와 포엽이 아름다운 온실성 관상용 착생식물로 수태 배지를 주로 이용한다.
- 원산지 : 열대 아메리카
- 이용장소 : 환기가 잘 되는 장소
- 온도 : 생육적온 16~30℃, 겨울철 개화 시 23.8℃ 정도의 온도를 필요로 하며, 겨울철 최소한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중앙 vase 부분에 물이 채워지도록 하며, 1~2개월씩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환해 주는 식으로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분주, 삽목

TIP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중앙 vase에 물을 채우지 않는다.

군자란

- 학명 : *Clivia miniata*, 수선화과
- 영명 : scarlet kaffir lily, kaffir lily
- 특성 : 실내에서 분화로 키우는 여러해살이 초화로, 주황색 꽃이 우산살 모양으로 피며,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건조에 특히 강하다.
- 원산지 : 남아프리카의 나탈
- 이용장소 : 실내의 환기가 잘 되며 밝은 장소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최소 4.4~10℃로 유지해 주며 실내 베란다에서는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봄~가을엔 적당하게, 늦가을~겨울엔 신초가 약 15cm 정도까지는 인색하게 보통으로 관수한다.
- 번식 : 실생, 분주

TIP

실내에서 분화로 기르는 여러해살이 초화로, 주황색 꽃이 우산살로 모양으로 피며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건조에 특히 강하다. 꽃이 피려면 잎의 수가 양쪽을 합쳐 17~19장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극락조화

- 학명 : *Strelitzia reginae*, 극락조화과
- 영명 : bird of paradise flower
- 특성 : 관엽, 관화식물
- 원산지 :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희망봉
- 이용장소 : 여름철은 그늘, 겨울철은 빛이 잘 드는 장소
- 온도 : 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 최소 12℃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배양토가 건조해졌을 때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실생, 분주

TIP

극락조와 같은 현란한 모양과 색을 가진 열대 초본식물로, 주로 절화로 이용한다.
새로운 개체가 개화하기까지 4~6년 정도 소요되며, 성숙한 식물은 화분 25.4cm, 초장 90~120cm로 성장한다.
환기가 잘 되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를 요하며, 자주 분무해 주는 것이 좋다.

금전수

- 학명 : *Zamioculcas zamiifolia*, 천남성과
- 영명 : money tree
- 특성 : 수분이 많은 지하경이 있으며, 광택 있는 잎이 매력적이다.
- 원산지 : 아프리카 동부, 남부
- 이용장소 : 그늘진 곳에서 잘 견디지만, 실내 밝은 간접광이 더 좋다.
- 온도 : 생육적온 18~26℃
- 물주기 : 분흙이 말랐을 때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주며, 과습은 좋지 않다.
- 번식 : 삽목

TIP

환경 조건에 견디는 힘이 뛰어나며, 과습한 상태에서 저온상태가 되면 뿌리가 썩기 쉽다.

기누라

- 학명 : *Gynura aurantiaca* 'Sarmentosa', 국화과
- 영명 : velvet tree
- 특성 : 부드러운 자주색 솜털이 잎 표면에 돋아나 전체적으로 자주색 빛이 도는 덩굴성 식물
- 원산지 : 자바
- 이용장소 : 반음성 식물로 실내의 반그늘진 장소
- 온도 : 20~27℃의 온도가 적합
- 물주기 : 보통으로 관수를 해 주며, 다습한 것을 좋아해 자주 분무해 준다.
- 번식 : 삽목, 실생

TIP

환기가 잘 되는 반 그늘진 곳에서 관리한다.

꽃치자

- 학명 : *Gardenia jasminoides,* 꼭두서니과
- 영명 : gardenia
- 특성 : 관엽, 관화식물
- 원산지 : 중국
- 이용장소 : 실내화분
- 온도 : 15~28℃, 겨울최저 5℃ 이상
- 물주기 : 봄에서 가을까지는 항상 배양토가 젖어 있을 정도로 관수하며, 겨울에는 줄인다. 미지근한 수돗물을 관수한다.
- 번식 : 삽목(봄)

TIP

꽃치자는 예쁜 모습에 배해 다소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이다. 특히 밤 온도가 15℃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낮에는 25℃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온도 뿐 아니라 물주기도 조심하지 않으면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향기가 진하므로 벌레들도 많이 생긴다.

나도풍란

- 학명 : *Aerides japonicum,* 난과
- 영명 : fox tail orchid
- 원신지 : 제주도, 경남, 전남, 일본, 타이완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간접적인 밝은 광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다습 70%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분주, 실생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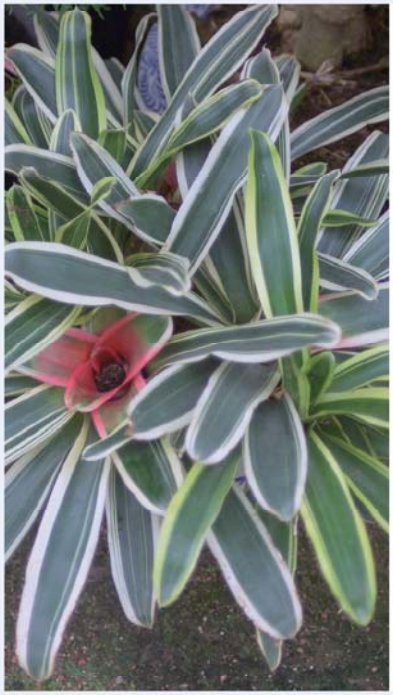
난지의 습윤한 나무 위나 바위 위에 착생하는 상록다년초

남천

- 학명 : *Nandina domestica*, 매자나무과
- 영명 : havenly bamboo
- 특성 : 꽃, 열매, 잎, 단풍이 모두 아름답고, 실내의 동양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 원산지 : 일본, 중국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0~22℃(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실생

TIP

분흙의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지나친 과습과 건조는 잎을 황화시켜 떨어지게 한다.



네오레겔리아

- 학명 : *Neoregelia carolinae* 'Tricolor', 파인애플과
- 영명 : striped blushing
- 특성 : 로제트상의 두꺼운 잎 가장자리에 세로로 노란색 줄무늬와 톱니가 있고 잎이 모여난 가운데 부분은 붉은 색을 띠는 온실성 관상용 착생식물
- 원산지 : 브라질 원산종의 변종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광을 필요로 하는 장소
- 온도 : 20~27℃의 따뜻한 온도가 적합하며 개화하는 데에는 23.8℃를 필요로 한다. 겨울철에는 최소 8℃를 유지한다.
- 물주기 : 중앙 'vase' 부분에 물이 채워지도록 1~2개월씩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환하며, 건조에 강하므로 건조해도 몇 주일은 죽지 않는다.
- 번식 : 흡지분주

TIP

온도가 낮을 때를 제외하고는 로제트 안에 항상 물을 품고 있어야 하며 다습함을 좋아하므로 여름철 분무하며 엽면시비, 수태로 관리한다.

네펜데스

- 학명 : *Nepenthes*, 벌레잡이통풀과
- 영명 : pitcher plants
- 원산지 :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 반도, 스리랑카
- 광요구도 : 남향, 서향의 충분한 햇빛
- 생육온도 : 16~29℃
- 공중습도 : 다습, 70% 이상
- 물주기 : 항상 수태를 축축하게 해 준다.
- 번식 : 삽목, 실생

TIP

대부분의 종류는 고온성으로 겨울철 난방 없이는 곤란하다.

노랑새우풀

- 학명 : *Pachystachys lutea*, 쥐꼬리망초과
- 영명 : golden shrimp plant
- 특성 : 실내 분화로 이용하는 작은 나무로 줄기 끝의 노란색 포엽 사이에서 흰색 꽃이 피는 상록 관목의 관화식물이다.
- 원산지 : 멕시코 원산종의 변종
- 이용장소 :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장소
- 온도 : 16~30℃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8℃ 이상에서 월동 가능
- 물주기 : 봄~여름까지는 자유롭게, 겨울철에는 인색하게 관수
- 번식 : 삽목

TIP

공중습도는 보통으로 여름에는 잎에 분무하도록 한다.

녹영

- 학명 : *Senecio rowleyanus,* 국화과
- 영명 : string of beads
- 특성 : 다육식물
- 원산지 : 서남아프리카
- 이용장소 : 실내 걸이용 화분
- 온도 : 5℃ 이상
- 물주기 : 봄, 여름을 제외하고는 1달에 1번 정도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TIP

잎이 마치 염주구슬처럼 생긴 덩굴성 다육식물이다.
사계절을 통하여 피는 작고 하얀 꽃이 파란 콩 모양의 잎과 더불어 귀엽다.
'Green necklace'로 불리며 다른 다육식물과 마찬가지로 배수와 통기성이 좋은 용토에 심어 과다한 물주기를 피해 건조한 듯 관리하며 충분한 일광이 필요하다.
건조에 강한 식물이므로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 관수하며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특별히 흙을 건조하게 관리한다.

뉴기니아봉선화

- 학명 : *Impatiens hawkeri,* 봉선화과
- 영명 : balsam, jewel weed
- 원신지 : 원예교배종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충분한 햇빛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
- 번식 : 삽목

TIP

꽃이 한달 정도 지속적으로 맺힌다.

대만고무나무 판다

- 학명 : *Ficus microcarpa* 'Panda'*(=F. retusa* 'Panda'*)*, 뽕나무과
- 영명 : Chinese banyan, Malayan banyan, Indian laurel, curtain fig
- 특성 : 대만고무나무(*F. microcarpa*)의 밑둥을 분재처럼 둥글게 재배한 종류를 '인삼벤자민', '가쥬마루'라 부르고, 이에 *F. microcarpa* 'Panda'를 접목시킨 것을 '인삼팬더'라고 부른다.
- 원산지 : 인도, 중국 남부,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열대지역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며, 그늘에서도 견디는 성질이 강한 편이다.
- 온도 : 16~30℃(겨울에는 10℃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지나친 과습이나 건조를 싫어한다.
- 번식 : 삽목

TIP

환경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므로 갑자기 햇빛으로 내 놓거나, 실내로 옮기면 잎이 많이 떨어지므로 서서히 적응기간을 두어 옮긴다.

덩굴성 미니장미

- 학명 : *Rosa hybrida* 'Mini Rose', 장미과
- 영명 : miniature rose
- 원산지 : 원예교배종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충분한 햇빛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토양을 축축하게 유지한다.
- 번식 : 접목

TIP

향기가 짙고, 개화가 빠르다. 다화성으로 연중 개화하고 가시가 거의 없다.

덴파레

- 학명 : *Dendrobium phalaenopsis*, 난과
- 특성 : 고온성 난. *Den. phalaenopsis*, *Den. bigibbum*종과 그 근연종을 중심으로 개량된 팔레놉시스형을 총칭한다.
- 원산지 : 열대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간접광
- 온도 : 최저 18~20℃
- 물주기 : 표면이 마르면 물주기
- 번식 : 삽목, 분주, 고아(高芽)

TIP

고온다습에서 생육이 빠르고 개화도 촉진되므로 육묘기간에는 20℃ 이상의 온도와 공중습도가 확보되도록 관리한다.

드라세나 레인보우

- 학명 : *Dracaena concinna* 'Tricolor Rainbow', 용설란과
- 영명 : rainbow tree
- 특성 : 잎의 가장자리에 붉고 가는 무늬가 선명함
- 원산지 : 마다가스카르 원산종의 원예품종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실내 밝은 곳
- 온도 : 겨울 최저온도 15℃ 이상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도록 관리하며, 물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TIP

빛이 부족한 경우는 잎의 색이 선명해지지 않는다.

드라세나 마지나타

- 학명 : *Dracaena marginata*, 용설란과
- 영명 : Madagascar dragon tree, red edged dracaena
- 특성 : 드라세나류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키우기가 가장 쉽다.
- 원산지 : 열대 아프리카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실내 밝은 곳
- 온도 : 겨울 최저온도 15℃ 이상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도록 관리하며, 물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TIP

빛이 부족한 경우는 잎의 색이 선명하지 않다.

드라세나 산데리아나

- 학명 : *Dracaena sanderiana*, 용설란과
- 영명 : ribbon plant
- 특성 : 관엽, 관목
- 원산지 : 서아프리카의 카메룬
- 이용장소 : 분화, 수경재배, 디쉬가든
- 온도 : 15℃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흠뻑 준다.
- 번식 : 분주

TIP

분화, 수경재배, 디쉬가든에 이용하며, 잎 가장자리에 하얀 테두리가 있다. 습도 유지를 위해 잎에 자주 분무해 준다.

드라세나 송오브인디아

- 학명 : *Dracaena reflexa* 'Variegata', 용설란과
- 영명 : song of India
- 특성 : 잎의 색상이 산뜻한 연두빛으로 보이는 기분 좋은 색상의 관엽식물
- 원산지 : 인도 남부, 세일론
- 이용장소 : 거실 등 넓은 공간, 꽃꽂이 절엽
- 온도 : 겨울 최저온도 15℃ 이상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도록 관리하며, 물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TIP

다른 드라세나류에 비하여 *D. reflexa*는 줄기가 약하여 조심해야 한다.

드라세나 송오브자마이카

- 학명 : *Dracaena reflexa* 'Song of Jamaica', 용설란과
- 영명 : song of Jamaica
- 유통명 : 자마이카
- 특성 : 잎의 색상이 산뜻한 연두빛으로 보이는 기분 좋은 색상의 관엽식물
- 원산지 : 인도, 동남아시아 열대지방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실내 밝은 그늘
- 온도 : 겨울 최저온도 15℃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TIP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드라세나 와넥키

- 학명 : *Dracaena deremensis* 'Warneckii', 용설란과
- 영명 : striped dracaena
- 유통명 : 흰줄무늬 드라세나
- 특성 : 녹색 잎에 흰색 줄무늬의 잎을 가진 관엽식물로 강건함
- 원산지 : 열대 아프리카 원산종의 원예품종
- 이용장소 : 실내 반그늘
- 온도 : 겨울 최저온도 15℃ 이상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도록 관리하며, 물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TIP

느리게 성장하는 품종으로 특별한 시비를 요하지 않는다.

드라세나 자바

- 학명 : *Dracaena angustifolia* 'Java', 용설란과
- 유통명 : 자바
- 특성 : 잎의 모양이 송오브자마이카보다 더 가늘다.
- 원산지 : 자바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실내 밝은 곳
- 온도 : 겨울 최저온도 15℃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TIP

키우기 어려운 식물은 아니지만 번식이 어렵다.

드라세나 콤팩타

- 학명 : *Dracaena deremensis* var. *compacta*, 용설란과
- 영명 : calypso queen, dwarf bouquet
- 특성 : 짙은 녹색의 잎을 지님
- 원산지 : 열대 아프리카 원산종의 원예품종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실내 반그늘
- 온도 : 겨울 최저온도 15℃ 이상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도록 관리하며, 물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TIP

물주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건조하지도 말고 너무 습하지도 않게 관수한다. 자주 옮겨 심는 것을 싫어한다.

디펜바키아 마리안느

- 학명 : *Dieffenbachia* 'Marianne', 천남성과
- 특성 : 부드러운 연녹색 잎의 중앙에 선명한 흰색 무늬가 있는 소형종
- 원산지 : 열대 아메리카의 원예품종
- 이용장소 : 실내의 밝은 장소
- 온도 : 생육적온 16~30℃, 겨울철 최소한 15℃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봄~가을 분흙은 항상 습하게 관리하며, 물 끊어짐이 계속되면 잎의 윤기가 없어진다.
- 번식 : 분주, 삽목

TIP

부드러운 연녹색 잎의 중앙에 선명한 흰색 무늬가 있는 소형종으로 넓고 시원스런 잎이 특히 서양식 가구에 잘 어울려 아파트 등의 분위기를 한결 안정되게 한다. 특히 즙액은 독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고온 다습을 좋아하므로 공중습도를 높게 유지하도록 한다.

디펜바키아 트로픽스노우

- 학명 : *Dieffenbachia amoena* 'Tropic Snow', 천남성과
- 영명 : dumb cane
- 특성 : 열대식물로 고온다습을 좋아해 공중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 원산지 : 남미
- 이용장소 : 실내의 밝은 장소
- 온도 : 열대식물로 추위에 약해 겨울철 최소한 10℃ 이상 유지한다.
- 물주기 : 봄~가을 분흙을 항상 습하게 관리하며, 물끊어짐이 계속되면 잎의 윤기가 없어진다.
- 번식 : 분주, 삽목

TIP

남미 원산의 열대식물로 추위에 아주 약한 편이므로 겨울철 난방이 잘 되는 곳에서만 월동한다. 그린 인테리어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음지에 잘 적응하는 이 식물의 즙액은 어린이의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떡갈잎고무나무

- 학명 : *Ficus lyrata*, 뽕나무과
- 영명 : fiddle leaf fig
- 특성 : 상록 교목, 실내 대형 화분
- 원산지 : 서아프리카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6~30℃(겨울에는 10℃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공중습도는 약간 습하게 관리한다.
- 번식 : 삽목

TIP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떡갈나무와 비슷한 잎을 가진 고무나무류로 2~3년마다 분갈이를 한다.
다른 고무나무류에 비해 과습한 상태에 병해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란타나

- 학명 : *Lantana camara,* 마편초과
- 영명 : common lantana
- 특성 : 붉은색에서 노란색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색이 꽃무리에 나타나는 분화용 작은 나무로 노란색으로 핀 꽃은 시들 때 붉어진다.
- 원산지 : 서인도, 열대 아메리카, 북구 텍사스
- 이용장소 : 양성식물이므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장소
- 온도 : 22~27℃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12.7℃ 이상 유지한다.
- 물주기 : 봄~가을 자유롭게 관수하며, 겨울철은 인색하게 관수한다.
- 번식 : 실생, 삽목

TIP

가능한 광을 많이 주지만, 여름 정오의 빛은 피하며 그늘에 위치하도록 한다.
식물 전체가 독이 있으므로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러브체인

- 학명 : *Ceropegia woodii,* 박주가리과
- 영명 : rosary vine, string of hearts
- 특성 : 흔하지 않은 잎 모양과 형태를 가진 다육식물
- 원산지 : 짐바브웨, 나타우(브라질)
- 이용장소 : 공중걸이 화분
- 온도 : 20℃ 이상, 겨울최저 10~13℃ 이상
- 물주기 : 봄에서 가을까지는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겨울에는 1~2개월에 1회 정도가 좋다.
- 번식 : 삽목(줄기, 잎), 알뿌리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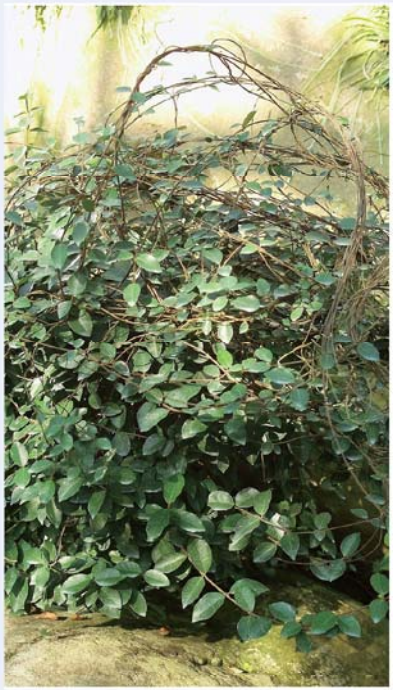
하트 모양의 두툼한 잎을 철사로 엮은 듯한 덩굴성 다육식물로 과다한 물주기나 비료 과다에 의한 뿌리썩음으로 흙 언저리의 줄기가 썩기 쉽다.
길이가 90cm 이상 자라며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이지만, 잎이 드문드문 나거나, 튜브처럼 생긴 꽃을 보기는 어렵다. 구근식물이므로 흙이 너무 젖어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다가스카르자스민

- 학명 : *Stephanotis floribunda,* 박주가리과
- 영명 : Madagascar jasmine
- 원산지 : 마다가스카르
- 광요구도 : 동향의 충분한 햇빛
- 생육온도 : 10~29℃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
- 번식 : 삽목

TIP

봄부터 여름에 걸쳐 순백색의 꽃이 피며 향기가 좋다.



마삭줄

- 학명 :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협죽도과
- 영명 : Asiatic jasmine
- 원신지 : 한국, 일본, 대만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낮은 광에서 간접적인 밝은 광까지
- 생육온도 : 5~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취목

TIP

상록 덩굴성 식물로 줄기에서는 뿌리가 내리며, 다른 물체에 붙어 자란다.

만년청

- 학명 : *Rohdea japonica*, 백합과
- 영명 : Nippon lily, sacrea lily, Japanese sacred lily
- 유통명 : 오모도
- 특성 : 생장속도가 매우 느리며 손질이 거의 필요 없다.
- 원산지 : 일본, 한국, 중국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6~30℃(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 충분히 관수하며, 다습한 공기를 좋아한다.
- 번식 : 분주

TIP

그늘에서 잘 견디는 내음성 식물이다.

만데빌라

- 학명 : *Mandevilla splendens*, 협죽도과
- 영명 : mandevilla
- 특성 : 관화, 덩굴성 식물
- 원산지 : 브라질
- 이용장소 : 실내, 반그늘의 덩굴성을 이용할 장소
- 온도 : 20~3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TIP

브라질 자스민, 동백 자스민이라는 이름처럼 꽃이 화려하고 은은한 향기를 지닌 매력적인 덩굴식물로 약간 건조하게 관리한다.

멕시코소철

- 학명 : *Zamia pumila,* 멕시코소철과
- 영명 : Jamaica sago tree
- 특성 : 소철과 유사한 덩이처럼 생긴 줄기에서 갈색 털로 덮인 단단한 가죽질 잎이 나온다.
- 원산지 : 멕시코, 자마이카, 콜롬비아, 서인도
- 이용장소 : 실내의 반 그늘진 장소
- 온도 : 16~30℃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최소 10℃ 이상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보통으로 관수
- 번식 : 실생

TIP

보통의 공중습도와 반그늘에서 관리한다.

몬스테라

- 학명 : *Monstera deliciosa,* 천남성과
- 영명 : Swiss cheese plant
- 특성 : 찢어진 잎 사이사이에 구멍이 나 있어 특이한 느낌을 주는 덩굴성 대형 관엽 온실 식물
- 원산지 :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 이용장소 : 햇빛이 잘 드는 장소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온도 : 16~30℃의 따뜻한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월동을 위해서는 5℃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4~10월까지 분흙의 표면이 마른 후에 물을 규칙적으로 준다.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잎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번식 : 삽목

TIP

식물전체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한달에 한번 욕실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 주는 것이 좋으며, 봄에 가지를 자르고 2~3년마다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해 준다.

무늬관음죽

- 학명 : *Rhapis excelsa* var. *variegata*, 야자과
- 영명 : variegated lady palm
- 특성 : 실내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남
- 원산지 : 중국 남부, 일본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6~21℃(겨울에는 10℃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지나친 과습이나 건조를 싫어한다.
- 번식 : 실생, 분주

TIP

실내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며, 여름의 직사광선 하에서는 잎이 황화되므로 주의한다.

무늬둥근잎아랄리아

- 학명 : *Polyscias balfouriana* 'Marginata', 두릅나무과
- 영명 : dinner plate aralia, balfour aralia
- 특성 : 관엽
- 원산지 : 뉴칼레도니아
- 이용장소 : 테라리움, 디쉬가든, 실내화분
- 온도 : 18~28℃, 겨울 최저온도 10~13℃ 이상
- 물주기 : 봄~가을은 겉흙이 마르면 주고, 겨울에는 물을 적게 준다.
- 번식 : 봄에 삽목(번식이 쉽지 않음)

TIP

건조에 민감하여 잎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은 아니다. 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고, 잎에 자주 분무하여 주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늬벤자민고무나무

- 학명 : *Ficus benjamina* 'Variegata', 뽕나무과
- 영명 : weeping fig, benjamin tree
- 특성 : 상록 교목, 실내 대형 화분으로 좋으며, 줄기가 유연하여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다.
- 원산지 : 동남아시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6~30℃(겨울에는 15℃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건조한 공기에도 잘 견딘다.
- 번식 : 삽목

TIP

저온, 과습, 빛이 부족한 경우 잎이 떨어지기 쉬우며, 겨울에 빛이 충분한 장소에서 기르고 2~3년마다 분갈이 해 준다.

무늬벵갈고무나무

- 학명 : *Ficus benghalensis* 'Variegata', 뽕나무과
- 영명 : Bengal fig, Indian fig
- 특성 : 상록 교목, 실내 대형 화분으로 좋으며, 줄기는 회백색으로 기근을 늘어뜨린다.
- 원산지 :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6~30℃(겨울에는 8℃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TIP

분흙의 물빠짐이 좋아야 하며, 지나친 과습과 건조는 잎을 황화시켜 떨어지게 한다.

무늬산호수

- 학명 : *Ardisia pusilla* 'Variegata', 자금우과
- 특성 : 상록 소관목, 포복경이 뻗어 가며, 산호수에 비해 크기가 작고 생육이 느리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 원산지 : 한국, 중국, 일본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반그늘
- 온도 : 최저 7℃ 이상
- 물주기 : 토양에 수분을 유지하도록 관수하고, 겨울에는 인색하게 한다.
- 번식 : 삽목, 분주

TIP

미온수로 잎에 자주 분무한다.

무늬자주만년초

- 학명 : *Rhoeo discolor* 'Variegata', 닭의장풀과
- 유통명 : 무늬부자란
- 특성 : 촉촉한 잎에 물기가 많아 꺾이기 쉬우므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 원산지 : 멕시코 원산종의 변종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20~25℃(겨울에는 최저 10℃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완전히 마른 후 준다.
- 번식 : 분주

TIP

여름 직사광 하에서는 잎이 타기 쉽다.

무늬접란

- 학명 : *Chlorophytum comosum* var. *variegatum*, 백합과
- 영명 : spider plant
- 특성 : 늘어진 잎 끝의 줄기 끝에 새끼화초가 달린다. 환경에 대한 적응이 뛰어나 키우기 쉽다.
- 원산지 : 남아프리카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20~25℃(겨울에는 최저 10℃ 이상)
- 물주기 : 규칙적으로 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 번식 : 분주(봄~여름에 새끼화초를 떼어 내어 새 화분에 심는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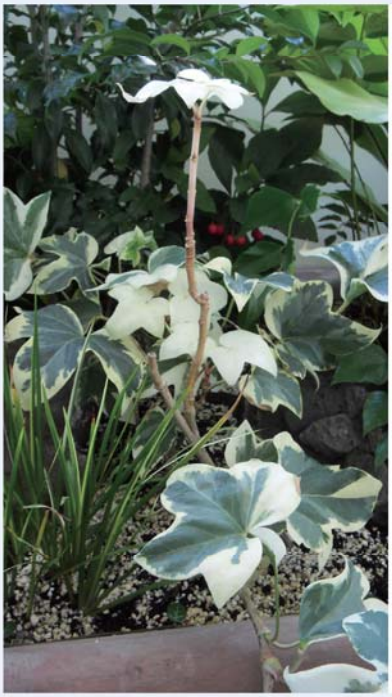
습도가 높아야 잘 자라며, 2년에 한번 이른 봄에 분갈이 하여 준다.

무늬털머위

- 학명 : *Ligularia tussilaginea* 'Argentea', 국화과
- 특성 : 노란 꽃이 보기 좋고, 추위에도 강한 편이다.
- 원산지 : 일본, 대만, 중국 원산종의 변종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5~25℃(겨울에는 최저 0℃ 이상)
- 물주기 : 규칙적으로 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 번식 : 분주

TIP

2년마다 배수가 좋은 용토에 분갈이 한다.



무늬팻츠헤데라

- 학명 : *Fatshedera lizei* 'Variegata', 두릅나무과
- 영명 : variegated tree ivy
- 특성 : 목본성 반덩굴성
- 원산지 : 원예속간 교배종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5~20℃(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분 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건조한 공기에도 잘 견딘다.
- 번식 : 삽목(여름)

TIP

분흙의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주의하며 팻츠헤데라의 반입종으로 팻츠헤데라에 비해서 추위에 약하다.

무스카리

- 학명 : *Muscari armeniacum*, 백합과
- 영명 : blue grape hyacinth, grape hyacinth
- 특성 : 구근
- 원산지 : 아르메니아, 이란 서부, 유럽
- 이용장소 : 실내화분, 수경재배, 실외 정원
- 온도 : 5~20℃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을 정도로만 준다.
- 번식 : 알뿌리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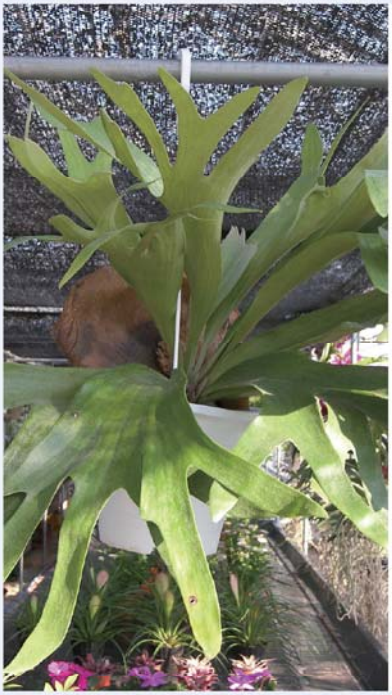
보랏빛 작은 단지 모양의 꽃이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실내, 실외 어디서나 키우기 쉽다. 구근식물이므로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한다.

뮤렌베키아

- 학명 : *Muehlenbeckia complexa,* 마디풀과
- 영명 : maidenhair vine, creeping wire vine
- 유통명 : 트리안
- 특성 : 덩굴성 관엽식물
- 원산지 : 뉴질랜드, 호주
- 이용장소 : 실내화단 지피용, 공중걸이
- 온도 : 15~21℃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 번식 : 삽목

TIP

열대성 덩굴식물로 보통 "트리안"으로 유통되고 있다.
실내 밝은 장소에 배치한다. 잎이 작은 데 비해 번식력이 왕성하여 지저분해지기 쉬우므로 자주 정리해 주어야 한다.
건조 및 습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여 실내식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박쥐란

- 학명 : *Platycerium bifurcatum,* 고란초과
- 영명 : common staghorn fern
- 특성 : 마치 양배추와 같은 엽상체 사이에서 또 다른 엽상체가 나오는 착생 고사리류 관엽식물이다.
- 원산지 :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아
- 이용장소 : 공중걸이, 실내 밝은 장소
- 온도 : 15~21℃
- 물주기 : 1주에 한 번씩 물통 속에 담근다.
- 번식 : 포자, 엽상체

TIP

회녹색의 사슴뿔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 밝은 곳을 좋아한다. 건조한 것보다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므로 잎에 자주 분무해 준다.

반다

- 학명 : *Vanda*, 난초과
- 영명 : vanda
- 원산지 : 동남아시아, 필리핀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간접적인 밝은 광
- 생육온도 : 10~30℃
- 공중습도 : 다습, 70% 이상
- 물주기 : 수태에 심거나 나무에 착생시켜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분주하거나 줄기에 기근을 붙여 심는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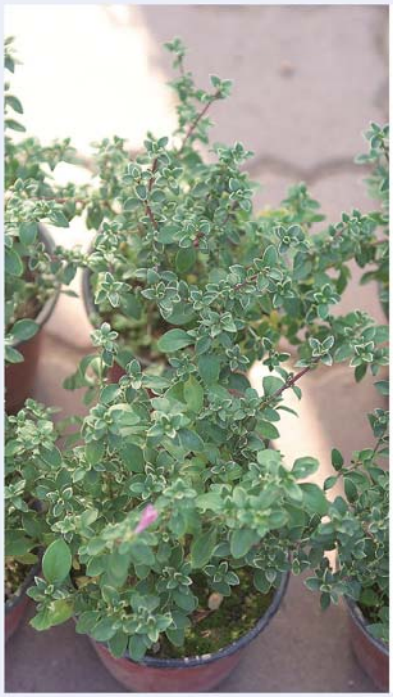
양란의 일종으로 키가 크고, 줄기는 하나이며, 꽃은 5~10개가 옆으로 달린다.

백량금

- 학명 : *Ardisia crenata*, 자금우과
- 영명 : spear flower, coral berry, spice berry, coral ardisia
- 특성 : 상록 소관목, 잎, 꽃, 붉은 열매를 약 6개월 정도 관상할 수 있으며, 「만냥금」으로도 유통된다.
- 원산지 :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
- 온도 : 15~21℃(겨울에는 7℃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봄, 여름), 실생(이른 봄)

TIP

둥근 톱니가 있는 광택 있는 잎과 붉은 열매가 특징적인 분화로 기르는 작은 나무로 자금우와 산호수에 비해 키가 더 높이 자란 후 열매를 맺는다.
특별한 비료는 필요 없으나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식물이므로 봄에 완효성 비료를 화분에 넣어 준다. 여름의 직사광선 하에서 잎에 반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백정화

- 학명 : *Serissa foetida*, 꼭두서니과
- 영명 : Japanese serissa
- 특성 : 상록 관목 관엽식물
- 원산지 : 아시아 동남부
- 이용장소 : 실내의 밝은 장소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5℃ 이상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생육이 활발한 5~10월에는 충분한 물을 주고, 추위가 시작되면 서서히 물주는 횟수를 줄이도록 한다.
- 번식 : 삽목

TIP

광택 있는 짙은 녹색 잎의 주맥과 가장자리를 따라 흰색 무늬가 있는 작은 나무로 실내 베란다와 같이 빛이 충분하면 흰꽃을 피운다.

백화등

- 학명 :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majus*, 협죽도과
- 영명 : trachelospermum
- 원신지 : 한국 남부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밝은 간접광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
- 번식 : 삽목

TIP

마삭줄 중에서 가장 잎과 꽃이 크며 향기도 강하다. 5~6월에 개화하며 내건성은 강하나 내한성은 다소 약한 편이다.

벤자민고무나무

- 학명 : *Ficus benjamina*, 뽕나무과
- 영명 : weeping fig, benjamin tree
- 특성 : 상록 교목, 실내 대형 화분으로 좋으며, 줄기가 유연하여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다.
- 원산지 : 동남아시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16~30℃(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건조한 공기에도 잘 견딘다.
- 번식 : 삽목

TIP

환경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므로 갑자기 햇빛으로 내 놓거나, 햇빛에 있다가 실내로 옮기게 되면 잎을 많이 떨구면서 힘든 기간을 보내기 때문에 서서히 적응기간을 주면서 옮긴다.

보스톤고사리

- 학명 : *Nephrolepis exaltata* 'Bostoniensis', 고란초과
- 영명 : Boston fern
- 특성 : 관엽
- 원산지 : 열대원산종의 원예품종
- 이용장소 : 공중걸이
- 온도 : 15~25℃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한다. (잎에 자주 분무해 줌)
- 번식 : 분주, 포자 번식

TIP

열대산의 고사리로 추위에 강해 실내라면 용이하게 월동한다. 반대로 여름의 고온 시는 뭉크러지는 수가 많아 통풍이 좋은 해그늘에 놓아 둔다. 한여름의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도유지가 되어야 잘 자란다.
공중걸이 화분에 알맞은 소형 고사리류로, 작은 잎이 달린 잎자루가 부드럽게 늘어져 아름답다.

부겐빌레아

- 학명 : *Bougainvillea glabra,* 분꽃과
- 영명 : paper flower
- 특성 : 관엽, 관화식물
- 원산지 : 브라질 원산종의 원예교배종
- 이용장소 : 실내화분
- 온도 : 여름에는 따뜻하게, 겨울에는 3~5℃ 정도의 저온에서 잎을 붙인 그대로 월동한다.
- 물주기 : 봄과 여름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겨울에는 물을 적게 준다.
- 번식 : 삽목(여름)

TIP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붉은색 포엽이 아름다워서 분화로 기르는 반덩굴성 나무이다.
꽃이 화려하고 색상이 다양하므로 더운 지방에서는 울타리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겐빌레아는 직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끊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브라이달 베일

- 학명 : *Gibasis geniculata,* 닭의장풀과
- 영명 : Tahitian bridal veil
- 특성 : 관엽, 관화
- 원산지 : 자마이카, 열대아메리카
- 이용장소 : 공중걸이
- 온도 : 15~25℃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 번식 : 삽목

TIP

생장이 빠르고 분지가 잘 된다. 습도유지가 중요하므로 자주 잎에 분무하여 주고, 흙은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한다.

브레이니아

- 학명 : *Breynia nivosa,* 대극과
- 영명 : leaf flower
- 특성 : 잎이 아름다운 관엽식물
- 원산지 : 남태평양제도, 플로리다 원산종의 원예변종
- 이용장소 : 빛이 잘 드는 거실, 온실
- 온도 : 최저 13℃ 이상, 생육적온 15~25℃
- 물주기 : 생장기 동안은 배양토가 촉촉할 정도로 많이 관수하고 겨울에는 관수량을 줄인다.
- 번식 : 삽목(여름)

TIP

잎이 아름다운 관엽식물로 습도에 민감하므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잎에 자주 분무한다.

브룬펠시아

- 학명 : *Brunfelsia australis,* 가지과
- 영명 : yesterday-today-and-tomorrow
- 특성 : 여름에 시원한 향기의 꽃을 피우는 분화용 작은 나무로 꽃이 필 때는 보라색이었다가 시들 때 흰색으로 변하는 상록관화식물
- 원산지 : 남아메리카
- 이용장소 : 실내의 밝은 장소
- 온도 : 6~30℃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7~10℃ 이상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보통으로 관수 관리한다.
- 번식 : 삽목(반숙지삽)

TIP

갑작스런 온도변화가 없는 곳, 보통의 공중습도에서 잘 자란다.

브리에세아

- 학명 : *Vriesea splendens*, 파인애플과
- 영명 : flaming sword
- 특성 : 짙은 로제트상 잎에 호랑이 무늬 같은 암갈색 무늬가 가로로 있다. 칼날 같이 긴 붉은 색 꽃대가 아름답다.
- 원산지 : 가나, 브라질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광이 드는 실내
- 온도 : 20~27℃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은 최소 5℃ 이상 유지한다. 개화하는 데에는 23.8℃의 고온을 필요로 한다.
- 물주기 : 중앙 'vase' 부분에 물이 채워지도록 1~2개월씩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환하며, 몇 주 가량은 건조해도 견디지만, 높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분무해 준다.
- 번식 : 실생

TIP

습도가 높아야 하며, 로제트는 기온이 낮을 때를 제외하고는 물을 항상 머금고 있는 것이 좋고 봄에 분지를 옮겨 심어야 한다.

비젯티접란

- 학명 : *Chlorophytum bichetii*, 백합과
- 영명 : ribbon plant
- 유통명 : 나비란
- 원산지 : 가봉, 인도 남부, 중국 남부
- 광요구도 : 북향, 남향, 동향, 서향의 간접적인 밝은 광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50% 이하
- 물주기 : 토양표면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줄기 끝에 달린 작은 식물체(plantlet)를 분주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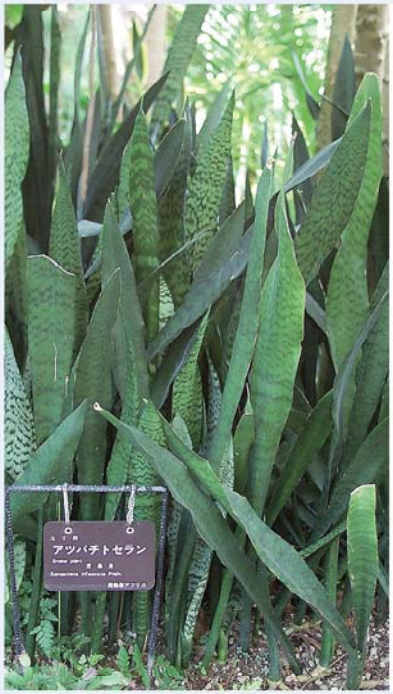
얇은 선형의 잎 가장자리에 얇은 흰줄 무늬가 있는 왜성종이다. 런너는 나오지 않고, *C. comosum*에 비해 성질이 약하고 꽃대는 가늘게 나와 흰색의 작은 꽃을 피운다.

산세베리아 하니

- 학명 : *Sansevieria trifasciata* 'Hahnii', 용설란과
- 영명 : dwarf snake plant
- 특성 : 산세베리아 원종의 잎과 무늬는 같으나, 잎 모양이 둥근 왜성품종이다.
- 원산지 : 열대 서부아프리카 원산종의 변종
- 이용장소 : 실내의 밝은 반그늘의 장소
- 온도 : 20~27℃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1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물이 얼지 않도록 월동해야 한다.
- 물주기 : 어두운 곳이나 습도가 낮은 곳에서는 물을 적은 듯, 5~9월 생육기에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관수한다.
- 번식 : 분주

TIP

마른 듯하게 관수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산세베리아

- 학명 : *Sansevieria trifasciata*, 용설란과
- 영명 : mother-in-low's tongue, snake plant
- 특성 : 영명은 진소리를 많이 하는 장모의 혓바닥 같다는 뜻을 지니며, 건조에 극히 강한 반면 과다한 물 주기는 뿌리썩음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 원산지 : 열대 아프리카
- 이용장소 : 실내의 간접광이 드는 장소
- 온도 : 20~27℃의 따뜻한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5℃까지 유지해야 하며 물이 얼지 않도록 월동해야 한다.
- 물주기 : 어두운 곳이나 습도가 낮은 곳에서는 물을 적은 듯, 5~9월 생육기에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관수한다.
- 번식 : 분주, 삽목, 실생

TIP

산세베리아 원종 잎의 가장자리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어 아름다운 품종이다.
너무 어두운 곳에 두면 잎의 색깔이 옅어지며 되도록 서늘한 곳에서 관리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봄에 분갈이 해 준다.

산호수

- 학명 : *Ardisia pusilla*, 자금우과
- 특성 : 붉은 열매를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아열대성 관엽, 관실식물
- 원산지 : 아시아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 온도 : 겨울에는 최소 5℃ 유지
- 물주기 : 토양에 수분을 유지하도록 관수하고, 겨울에는 인색하게 한다.
- 번식 : 실생, 삽목, 분주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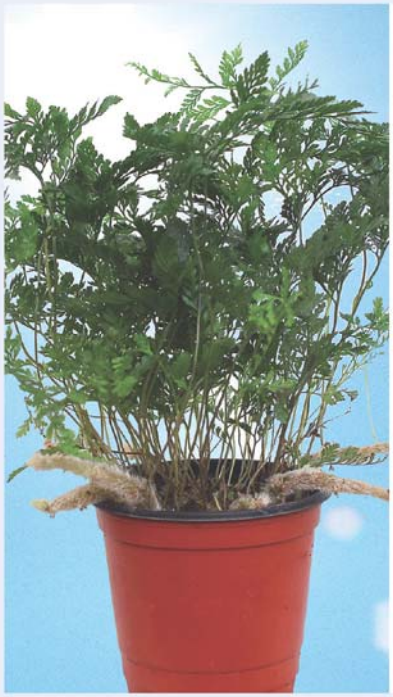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하고, 겨울철 밝은 빛을 유지해야 하며 습한 것을 좋아해 자주 분무해 주는 것이 좋다.
붉은 열매를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어 분화식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삼색데코라고무나무

- 학명 : *Ficus elastica* 'Decora Tricolor', 뽕나무과
- 영명 : rubber plant, decora tree, Indian rubber bush
- 특성 : 상록 교목, 실내 대형 화분
- 원산지 : 열대 아시아 원산종의 변종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
- 온도 : 16~30℃(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분 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건조한 공기에도 잘 견딘다.
- 번식 : 삽목, 고취법(높이떼기)

TIP

분흙의 물빠짐이 좋아야 한다. 지나친 과습과 건조는 잎을 황화시켜 떨어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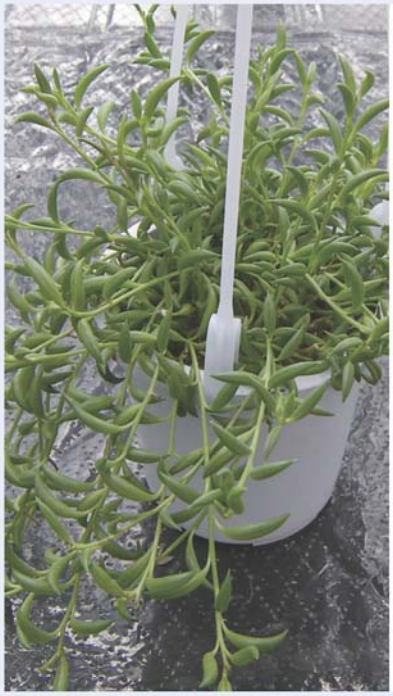


상록넉줄고사리

- 학명 : *Davallia mariesii* var. *stenolepis*, 고란초과
- 영명 : hare's foot fern, squirrel's foot, rabbit's foot
- 특성 : 털이 무성한 근경이 화분 가장자리를 넘어 자라는 모습이 재미있는 관엽식물
- 원산지 : 아열대 지방
- 이용장소 : 공중걸이, 분경, 실내 밝은 장소
- 온도 : 최저 4℃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TIP

열대 상록성 양치식물로 잎 뒷면의 포자로 번식할 수도 있지만 주로 근경으로 번식하며, 착생식물로 보통 돌이나 나무에 붙어 자란다. 실내적응성이 좋다.
흙은 과습하지 않도록 하고 잎에는 자주 분무해 주어 주위의 습도를 조절한다.



세네시오 라디칸스

- 학명 : *Senecio radicans*, 국화과
- 영명 : senecio
- 특성 : 녹영이 둥근 구슬을 꿴 모양이라면, 세네시오 라디칸스는 작은 녹색 바나나를 줄에 꿰어 놓은 형상의 다육식물이다.
- 원산지 : 남아프리카
- 이용장소 : 공중걸이
- 온도 : 10~25℃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준다.

TIP

육질이 많아 잘 부러지며, 서늘한 곳을 좋아한다.

셀라기넬라 왓소니아나

- 학명 : *Selaginella martensil* 'Watsoniana', 부처손과
- 영명 : blue-green peacock fern
- 특성 : 상록성 관엽식물
- 원산지 : 멕시코 우림지대, 중앙아메리카
- 이용장소 : 실내화단 지피용, 분경 등
- 온도 : 15~25℃(겨울에는 10℃ 이상)
- 물주기 : 늘 배양토에 습기가 있도록 관리한다.
- 번식 : 줄기 삽목(땅위를 기는 줄기를 가짐)

TIP

밝은 그늘의 고온다습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잎에 자주 분무하여 준다. 겨울에도 용토를 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철

- 학명 : *Cycas revoluta*, 소철과
- 영명 : sago cycas, sago palm
- 특성 : 철을 주면 시들한 식물도 소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철분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주면 생육이 좋아진다. 잎의 수명은 보통 3~4년 정도이나 해마다 새 잎이 나오므로 지상부가 무성해진다.
- 원산지 : 일본, 동남아시아의 인도 등
- 이용장소 : 양성식물이므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장소
- 온도 : 16~35℃의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며, 겨울에는 서늘하게 기르고, 최소 0℃를 유지한다.
- 물주기 : 4~10월까지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분흙의 표면이 마른 후 물을 흠뻑 준다. 겨울철 식물을 서늘하게 기르는 시기에는 토양을 건조하게 유지하며, 물끊어짐에 비교적 강한 편이다.
- 번식 : 분주, 실생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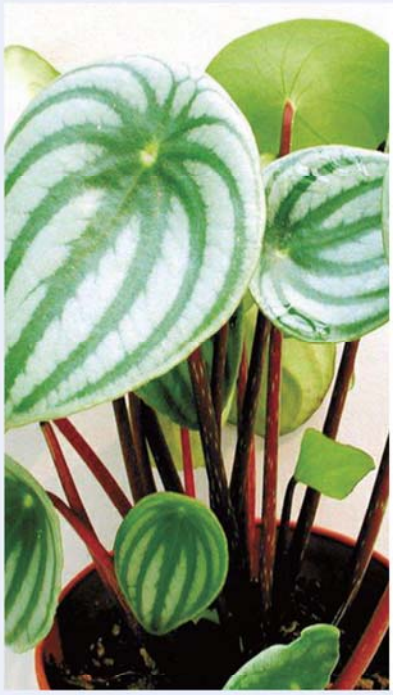
광택 있는 짙은 녹색의 작은 잎들이 촘촘히 붙어 부드럽게 늘어진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다. 실외에서 기를 때는 그늘에서 기르며, 햇빛 아래서 기르면 잎이 크게 자란다.

솔레이롤리아

- 학명 : *Soleirolia soleirolii,* 쐐기풀과
- 영명 : angel's tears
- 특성 : 열대성 지피식물로 옆으로 뻗는 성질이 강하고, 실내적응성이 좋으며, 빛이 적을 때는 꽃과 열매가 맺히지 않아 관엽식물로 관상한다.
- 원산지 : 유럽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을 피한 간접광이 드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
- 온도 : 서늘한 곳이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찬바람과 공기의 건조에 주의해야 한다.
- 물주기 : 4~10월까지 분흙의 표면
- 번식 : 분주, 삽목

TIP

습도가 높은 곳에서 기르며 휴면기인 겨울에는 빛이 드는 서늘한 곳에 둔다. 봄에 빛이 있을 때 가지를 잘라 주면 생장이 촉진되며 매년 봄에 분갈이를 해 준다.



수박페페로미아

- 학명 : *Peperomia sandersii,* 후추과
- 영명 : watermelon peperomia
- 특성 : 빨간 잎자루에 수박같이 흰 줄무늬가 있는 다육질의 잎을 가진 소형 관엽식물로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잎뎀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 원산지 : 브라질, 열대 남아메리카
- 이용장소 : 해그늘이나 창 가까운 밝은 실내
- 온도 : 10~22℃의 따뜻한 곳이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12℃ 이상 유지
- 물주기 : 봄~가을까지 규칙적으로 겉흙이 마르면 관수하고 과습에 약하므로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죽는다. 물끊어짐에는 비교적 강한 편이다.
- 번식 : 삽목, 분주

TIP

빨간 잎자루에 수박같이 흰 줄무늬가 있는 다육질의 잎을 가진 소형 관엽식물로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잎뎀을 일으키기 쉽다. 습도가 높아야 하고 매년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해 주며 무성한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를 잘라 준다.

수박필레아

- 학명 : *Pilea cadierei,* 쐐기풀과
- 특성 : 잎 위쪽에 성긴 톱니가 있는 타원형 잎 표면에 규칙적인 은색 무늬가 있다.
- 원산지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 이용장소 : 반음성의 장소
- 온도 : 생육적온 10~22℃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분주

TIP

열대식물이지만 10℃ 이상에서 월동하여 온실에서 겨울을 나고 그늘이나 직사광선에서도 잘 자란다.

수염 틸란드시아

- 학명 : *Tillandsia usneoides,* 파인애플과
- 영명 : Spanish moss
- 특성 : air plant(氣生식물, 착생식물)
- 원산지 : 미국 남동부, 중부, 아르헨티나 중부
- 이용장소 : 공중걸이
- 온도 : 15℃ 이상
- 물주기 : 미지근한 물을 규칙적으로 분무한다.
- 번식 : 개체를 떼어 내어 공중에 걸어 둔다.

TIP

뿌리가 없이 공중에서 습도와 영양분을 흡수하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해 준다.

쉐플레라 악티노필라

- 학명 : *Schefflera actinophylla*, 두릅나무과
- 유통명 : 대엽홍콩
- 특성 : 끝이 뭉툭한 타원형의 작은 잎들이 둥글게 모여 하나의 잎을 이룬 대표적인 관엽식물로 상록교목 관엽식물
- 원산지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아, 자바
- 이용장소 : 밝은 실내가 이상적이지만 모든 환경에 잘 순응하는 편이며,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좋아한다.
- 온도 : 생육적온 20~27℃, 겨울철 최소한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삽목, 실생

TIP

4~9월까지 년 1회 영양관리를 권장한다.

쉐플레라(홍콩야자)

- 학명 : *Schefflera arboricola*, 두릅나무과
- 영명 : octopus tree
- 특성 : 끝이 뭉툭한 타원형의 작은 잎들이 둥글게 모여 하나의 잎을 이룬 대표적인 관엽식물로 상록교목 관엽식물
- 원산지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아, 자바
- 이용장소 : 밝은 실내가 이상적이지만 모든 환경에 잘 순응하므로 영향이 크지 않다. 또한 환기가 잘 되는 장소가 좋다.
- 온도 : 고온(20~27℃), 겨울철 얼지 않을 정도로 월동
- 물주기 : 4~10월까지 표면이 마른 후 물을 흠뻑 주는 방식으로 보통관수를 권장하지만 수경재배도 가능할 정도로 물을 좋아한다.
- 번식 : 삽목, 실생

TIP

4~10월까지 월 1회 비료시비를 권장하고, 싹이 잘 트므로 가끔 흩어진 포기의 재생 방법이 중요하다.

스킨답서스

- 학명 : *Epipremnum aureum*, 천남성과
- 영명 : devil's ivy(영국), golden pothos(미국)
- 특성 : 관엽, 덩굴형 음지에 강한 식물
- 원산지 : 솔로몬군도
- 이용장소 : 실내의 모든 장소, 특히 부엌 가까이에 배치한다.
- 온도 : 최저 10~13℃ 이상, 생육적온 15~20℃
- 물주기 : 겉흙이 마른 후 흠뻑 준다.
- 번식 : 삽목(봄, 여름)

TIP

흰색, 크림색 무늬가 들기 위해서 적당한 빛이 필요하다.(무늬종은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녹색으로 변함)
짙푸른 잎에 노란 무늬가 듬성듬성 있는 대표적인 덩굴성 관엽식물로, 주로 공중걸이 화분으로 이용한다.

스파티필럼

- 학명 : *Spathiphyllum wallisii*, 천남성과
- 영명 : peace lily, white flag
- 특성 : 관엽, 관화식물로 실내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다. (암모니아, 벤젠,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알코올, 아세톤 등 적용 범위가 넓음)
- 원산지 :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이용장소 : 실내정원, 화분
- 온도 : 18~28℃, 겨울 최저온도 13℃ 이상
- 물주기 : 항상 배양토가 젖어 있을 정도로 관수한다. (겨울에는 관수량 줄임)
- 번식 : 분주(포기 나누기)

TIP

적절한 습도 유지가 중요하며, 분흙 위를 수태로 가려 주거나 자갈을 깐 접시 위에 화분을 올려 놓아 관리하고 잎에 자주 분무한다.

시계초

- 학명 : *Passiflora* spp., 시계초과
- 영명 : passion flower
- 원산지 : 브라질 남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 광요구도 : 동향, 서향의 충분한 햇빛
- 생육온도 : 16~29℃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실생, 삽목

TIP

오렌지색의 달걀 모양 열매가 맺히고, 익으면 과육을 먹을 수 있다.

심비디움

- 학명 : *Cymbidium hybrida*, 난과
- 특성 : 열대성과 온대성이 있다. 심비디움이라고 하면 주로 열대성 지방에 자생하는 것을 총칭한다.
- 원산지 : 인도, 미얀마, 호주, 태국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 온도 : 최저 10℃ 이상
- 물주기 : 용토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
- 번식 : 분주

TIP

생육적온은 15~25℃이며 낮에는 강한 광선에, 밤에는 시원하고 수분이 충분해야 잘 자란다. 봄에 새순은 2개 정도만 남기고 따야 한다.

아글라오네마

- 학명 : *Aglaonema* spp., 천남성과
- 영명 : spotted evergreen
- 특성 : 잎이 고상한 관엽식물
- 원산지 : 말레이시아, 타이
- 이용장소 : 분화, 수경
- 온도 : 15~25℃
- 물주기 : 규칙적으로 관수하며 습도 유지를 위하여 화분가를 축축하게 해 준다.
- 번식 : 분주

TIP

화려하고 고상한 잎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속도가 느리다.
다양한 회녹색 무늬가 있는 연녹색 잎을 가진 식물로, 추위에 약하다.
환경적응성이 뛰어나 건조나 습한 환경에 적응을 잘 하나 특히 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저온에 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디안텀

- 학명 : *Adiantum raddianum*, 고사리과
- 영명 : maidenhair fern
- 특성 : 연한 녹색의 잎이 부드러운 관엽식물
- 원산지 : 브라질
- 이용장소 : 테라리움, 실내 밝은 장소
- 온도 : 보통온도 15~21℃(밤에는 시원한 것을 좋아함)
- 물주기 : 배양토에 항상 습기가 있도록 관리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음)
- 번식 : 분주, 새로운 식물체

TIP

실내의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식물인 만큼 잎에 자주 분무하여 잎이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잎이 얇고 공기의 건조에 매우 약하므로 습도를 유지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며 잎이 오글쪼글해져 버렸을 때는 가급적 빨리 지상부를 땅 언저리에서 베어 내고 물주기에 신경 쓴다.
새싹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루에 2~3회 분무한다. 1개월쯤 지나면 잎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아라우카리아

- 학명 : *Araucaria heterophylla*, 아라우카리아과
- 영명 : Norfolk island pine
- 원산지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낮은 광에서 밝은 간접광까지
- 생육온도 : 5~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어렵다. 식물을 재구입하는 것이 쉬움

TIP

공기가 건조하거나 토양이 건조하면 아랫잎부터 떨어져서 관상 가치가 없어지므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내에서 기르는 상록 침엽수로, 주간에서 직각으로 뻗은 단정한 가지가 피라미드 수형을 이루어 아름다우며 여름철에는 실외의 그늘진 곳에서 기를 수 있다.

아레카야자(황야자)

- 학명 : *Chrysalidocarpus lutescens*, 야자과
- 영명 : areca palm, butterfly palm, golden feather palm
- 특성 : NASA가 지정한 실내공기 정화 식물 중에서 가장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식물로 거실이나 사무실 등의 공기정화에 필수적인 식물이다.
- 원산지 : 마다가스카르, 열대, 아열대
- 이용장소 : 거실, 사무실, 로비 등 넓은 공간
- 온도 : 16~25℃, 겨울 최저 10℃ 이상
- 물주기 :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수하며, 특히 분무에 신경 써서 주위의 습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번식 : 실생(25℃ 이상)

TIP

비교적 키우기 쉽지만 너무 강한 직사광선이나 건조한 공기는 싫어한다. 야자류 중에서는 질감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며, 가습기를 대신할 정도로 증산량이 뛰어난 식물이다.

아스파라거스 세타세우스

- 학명 : *Asparagus setaceus,* 백합과
- 영명 : asparagus fern, lace fern
- 원산지 : 남아프리카
- 광요구도 : 북향, 동향, 서향의 밝은 간접광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낮은 습도, 40% 미만
- 물주기 : 생장기에는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 번식 : 실생, 분주

TIP

덩굴성 상록식물로 꽃 장식에 많이 이용되는데 수많은 작은 엽상경 조각들이 부드러운 질감을 주어 꽃장식에서 자른 가지로도 많이 이용한다.
강한 햇살이나 너무 건조하면 잎이 떨어지는 수가 많으므로 여름은 해그늘에서 키우며 너무 자란 가지는 어디든 잘라 준다.

아스플레니움

- 학명 : *Asplenium nidus,* 고란초과
- 영명 : bird's nest fern
- 특성 : 연녹색의 굉택 있는 잎이 시원한 관엽식물
- 원산지 :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등
- 이용장소 : 실내 화분 식물
- 온도 : 15~25℃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잎에 자주 분무해 준다)
- 번식 : 근경 옆에서 자라는 새로운 식물체를 분주한다.

TIP

한여름의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도 유지가 되어야 잘 자라며 새로운 엽상체는 잘 찢어지므로 취급 시 주의한다.

아이비

- 학명 : *Hedera helix*, 두릅나무과
- 영명 : English ivy
- 특성 : 관엽, 반음지 덩굴성 식물
- 원산지 :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 이용장소 : 다소 서늘한 곳, 무늬종(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
- 온도 : 밤의 온도가 15℃ 이하가 되도록 서늘하게 관리한다.
- 물주기 : 물을 좋아하므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순지르기 때 나오는 줄기 이용)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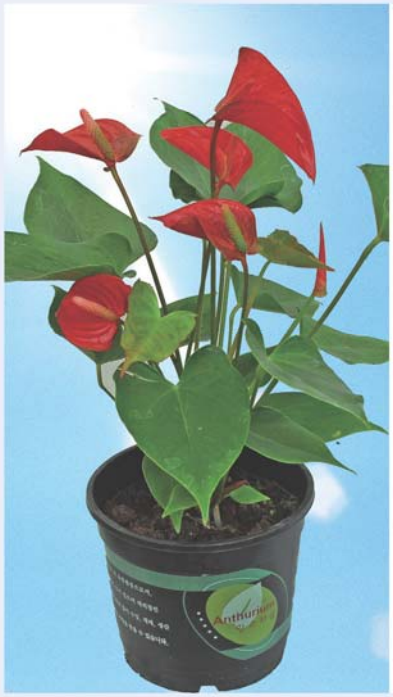
보통 세 갈래로 깊게 갈라진 잎을 가진 덩굴성 식물로, 다양한 잎 모양과 무늬를 가진 품종들이 많이 있다.
더운 것을 싫어하므로 너무 더운 곳은 피하고 조금 서늘한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주위가 건조할 때는 잎에 자주 분무해 준다.

아프리칸바이올렛

- 학명 : *Saintpaulia ionantha*, 제스네리아과
- 특성 : 다년생, 다육질의 타원형 잎에 털이 있고, 꽃의 색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있다.
- 원산지 : 탄자니아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직사광선을 피함
- 온도 : 최저 15℃ 이상, 갑작스런 온도변화에 민감함
- 물주기 : 표면 흙이 말랐을 때 배수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준다. 잎에 털이 있어 잎 아래 흙에만 물을 주거나 저면관수 방법을 이용한다.
- 번식 : 실생, 삽목(잎줄기+잎)

TIP

습도유지가 필수적이며, 꽃잎이나 잎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강한 빛을 쪼이면 색이 변할 수 있다.
실내에서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연중 꽃을 볼 수 있는 분화식물이다.



안수리움

- 학명 : *Anthurium andreanum*, 천남성과
- 영명 : flamingo flower
- 특성 :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광택이 있는 포엽이 아름다워 실내에서 분화로 기르는 열대 관엽, 관화 식물
- 원산지 : 콜롬비아(뉴그라나다)
- 이용장소 : 반음성의 70% 이상 다습한 장소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에는 최소 15.5℃를 유지한다.
- 물주기 : 물을 조금씩 충분히 주어 배양토를 습하게 유지한다.
- 번식 : 분주, 실생

TIP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하고, 겨울철 밝은 빛을 유지해야 하며 습한 것을 좋아해 자주 분무해 주는 것이 좋다.

알로카시아

- 학명 : *Alocasia* spp., 천남성과
- 영명 : Kris plant
- 특성 : 관엽, 직립형
- 원산지 : 열대~아열대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
- 온도 : 18~20℃
- 물주기 : 물을 좋아하므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분주

TIP

특이한 잎 구조를 가지고 눈길을 끄는 관엽식물이지만 실내에서 재배하기 힘들어, 실내에서 3~4개월 관상 후 온실에서 관리한다.

애니시다(금작화)

- 학명 : *Cytisus scoparius*, 콩과
- 영명 : paradise broom, common broom
- 특성 : 실외에서는 broom, 실내에서는 genista라고 불리는 관목
- 원산지 : 중남부 유럽
- 이용장소 : 꽃 피는 시기에는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 겨울에는 반음지에 둔다.
- 온도 : 내한성이 뛰어나서 겨울에는 4℃까지도 견딘다.
- 물주기 : 꽃 피는 시기에는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여름)

TIP

꽃 피는 시기에 잎에 자주 분무해 준다.

야래향

- 학명 : *Cestrum nocturnum*, 가지과
- 영명 : night jasmine, lady of the night
- 특성 : 여름 밤에 긴 나팔 모양의 작은 꽃이 피어 진한 향기를 발산하는 상록관목 방향식물이다.
- 원산지 : 열대 아메리카 서인도제도
- 이용장소 : 환기가 잘 되는 실내의 밝은 곳
- 온도 : 20~27℃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최소 7.2℃를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배양토가 항상 축축하게 충분히 관수를 해 주는 것이 좋으나 겨울철에는 관수를 줄인다.
- 번식 : 실생, 삽목

TIP

밝은 빛을 좋아하나 여름철 강한 빛은 피하며, 가끔식 분무를 해 주며 환기를 잘 시켜 주는 것이 좋다.

얼룩식나무

- 학명 : *Aucuba japonica* 'Variegata', 층층나무과
- 유통명 : 금식나무
- 특성 : 광택 있는 짙은 잎 가장자리에 굵고 부드러운 톱니가 있으며 군데군데 노란색 반점 있다.
- 원산지 : 열대, 아열대 아시아
- 이용장소 : 겨울의 실내장식에 유리하며, 빛을 좋아하므로 창가 또는 베란다에 배치한다.
- 온도 : 겨울철 최소한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건조에 강한 편으로 화분 속의 흙이 어느 정도 마른 뒤에 충분히 물을 준다.
- 번식 : 삽목

TIP

우리나라의 남해안 정도의 기온에서 월동하는 아주 강한 식물로 시중에서는 '아오끼'라는 일본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빛이 모자라면 잎에 검은 점이 생기거나 새순이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부족한 광에 유의해야 한다.

에리카

- 학명 : *Erica* spp. *(Erica, Heather)*, 진달래과
- 특성 : 상록 관목
- 원산지 : 북유럽,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호주
- 이용장소 : 밝은 광, 약간의 직사광선도 좋다.
- 온도 : 서늘하게 관리하며, 꽃을 피웠을 때 4.5~13℃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 물주기 : 항상 배지가 수분을 보유하도록 자주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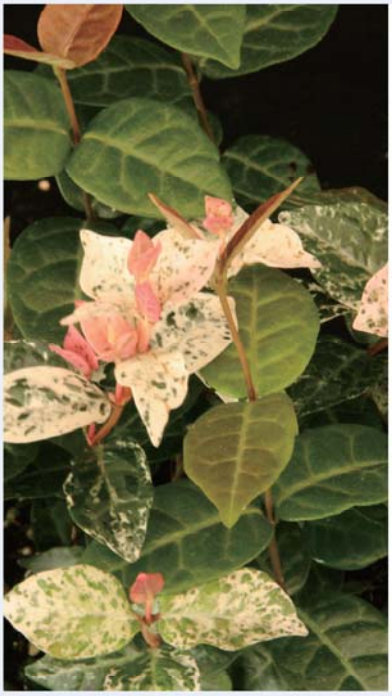
다음 해를 위하여 꽃이 진 후에 줄기를 정리하여 여름 동안 실외에 배치한다.

에스키난서스

- 학명 : *Aeschynanthus radicans*, 제스네리아과
- 영명 : lipstick vine
- 특성 : 덩굴성 다육식물
- 원산지 : 자바, 말레이 반도
- 이용장소 : 실내의 공중걸이 화분
- 온도 : 16~28℃, 겨울 최저 13℃ 이상
- 물주기 : 봄에서 가을까지는 겉흙이 마르면 관수하고 겨울에는 관수량을 줄인다.
- 번식 : 삽목(줄기)

TIP

미국과 동남아에서는 '트리쵸스'로 불리지만, 유럽에서는 에스키난서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내한성이 약해서 온도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다육식물이지만 주위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자주 분무하여 준다. 건조한 조건에서는 기르기 쉽지 않다.



오색마삭줄

- 학명 : *Trachelospermum asiaticum* 'Hatuyukikazura', 협죽도과
- 유통명 : 초설
- 특성 : 관엽식물
- 원산지 : 한국 남부, 일본
- 이용장소 : 실내화단 지피용, 테라리움, 실내화분 등
- 온도 : 15~25℃(겨울에는 5℃ 이상)
  보통의 마삭줄은 온도 적응범위가 넓어 아주 추운 겨울의 실내화단에서도 잘 견디지만, 오색마삭줄은 그 종에 비해 약한 편이다.
- 물주기 : 내건성이 강하므로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번식 : 실생, 삽목, 취목

TIP

내한성은 다소 약하지만 내건성, 내공해성은 뛰어나며,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빛이 필요하다.

옥살리스 디페이

- 학명 : *Oxalis deppei*, 괭이밥과
- 영명 : good luck shamrock(토끼풀), rosette clover
- 특성 : 관엽, 관화(6~8월 사이에 분홍, 빨간색 꽃이 피는데 몹시 청초하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 원산지 : 멕시코
- 이용장소 : 분화, 실내조경 지피식물
- 온도 : 보통 온도, 겨울 최저 9℃ 이상
- 물주기 : 구근식물이지만 배양토에 늘 습기가 있을 정도로 관수한다. 그러나 과습하면 역효과가 나므로 너무 많은 물을 주지는 않는다.
- 번식 : 분주(봄)

TIP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양토가 완전히 마르지 않는 정도로 물주기를 제한해서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온시디움

- 학명 : *Oncidium* spp., 난과
- 특성 : 꽃은 주로 노란색이 많음
- 원산지 : 멕시코, 브라질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반그늘,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60~70% 정도 습도를 유지한다.
- 온도 : 최저 10℃ 이상
- 물주기 :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며 건조와 습기를 번갈아 해 주어 뿌리가 잘 뻗도록 한다.
- 번식 : 분주

TIP

꽃은 주로 노란색이 많으며, 봄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 옮겨 심고 월 1회 고형비료와 액비를 준다.

유제니아

- 학명 : *Eugenia myrtifolia,* 도금양과
- 영명 : Australian brush cherry
- 특성 : 상록 관목, 잎과 꽃을 관상함
- 원산지 : 호주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
- 온도 : 15~20℃(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분흙이 마른 다음에 충분히 관수하며, 공중습도는 약간 습하게 관리한다.
- 번식 : 삽목, 조직배양

TIP

빽빽한 잎이 조밀하여, 다양한 수형을 만들 수 있다.

유카

- 학명 : *Yucca gloriosa,* 용설란과
- 영명 : mound lily, yucca
- 특성 : 굵은 줄기 윗부분에 빽빽이 달린 뾰족한 가죽질의 잎을 가진 강건한 내한성의 상록 관상식물
- 원산지 : 아메리카 남부
- 이용장소 : 양성식물이므로 충분한 광선이 드는 장소
- 온도 : 20~27℃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한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생장이 활발해지는 4월부터는 물을 충분히 주었다가 10월부터는 서서히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 겨울에는 건조하게 기른다.
- 번식 : 분주

TIP

화단용 식물로 어둡지 않은 반그늘에 두며 지나치게 빛이 부족하면 잎의 색이 희미해지나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익소라

- 학명 : *Ixora chinensis,* 꼭두서니과
- 영명 : Chinese ixora
- 특성 : 수국과 같이 탐스러운 주황색 꽃이 줄기 끝에서 피는 작은 나무로 분화식물로 이용한다.
- 원산지 : 중국 남부, 타이완
- 이용장소 :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장소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15.5℃ 이상 유지한다.
- 물주기 : 항상 배양토가 축축하게 충분한 관수를 해 주며, 겨울에는 관수를 줄이고 연수를 사용한다.
- 번식 : 삽목

TIP

다습을 좋아하므로 정기적으로 잎에 분무한다.

자금우

- 학명 : *Ardisia japonica,* 자금우과
- 유통명 : 천량금
- 특성 : 상록 소관목, 포복경이 뻗어 가며 3개월 이상 붉은 열매가 달려 있다.
- 원산지 : 한국, 중국, 일본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반그늘
- 온도 : 최저 7℃ 이상
- 물주기 :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도록 관수하고, 겨울에는 인색하게 한다.
- 번식 : 실생, 삽목, 분주

TIP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밝은 빛을 요구하며 미온수로 잎에 자주 분무한다.

자스민

- 학명 : *Jasminum polyanthum,* 물푸레나무과
- 영명 : pink jasmine
- 특성 : 관엽, 관화 식물. 봉오리 때는 핑크 색이지만, 꽃이 피면 흰색으로 변한다.
- 원산지 : 남아프리카
- 이용장소 : 더러는 직사광선을 포함해서 많은 빛이 필요하므로 여름에는 실외에 두어도 좋다.
- 온도 : 겨울최저 7℃ 이상, 생육적온 15~25℃
- 물주기 : 배양토가 촉촉할 정도로 물관리를 한다. 과습은 좋지 않다.
- 번식 : 삽목(봄)

TIP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겨울을 차게 보내야 하고 덩굴이 빨리 자라므로 과습하지 않도록 환기를 잘 시킨다.

제라니움

- 학명 : *Pelargonium hortorum,* 쥐손이풀과
- 영명 : Geranium
- 원신지 : 남아프리카 원신종의 원예교배종
- 광요구도 : 남향, 서향의 충분한 햇빛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TIP

원형에 가까운 잎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와 계속 꽃이 피는 분화류이다.
ivy-leaved geranium, 색상이 다양하며 공중걸이로 많이 이용된다.

제브리나

- 학명 : *Zebrina pendula*, 닭의장풀과
- 영명 : silvery wandering jew
- 특성 : 두 갈래의 흰 무늬가 있는 자주색 잎을 가진 덩굴 식물로 생장이 왕성하다.
- 원산지 : 멕시코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 온도 : 겨울철 최소한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 물주기 : 배양토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TIP

일조가 부족하면 꽃을 맺지 않는다.

좀마삭줄

- 학명 : *Trachelospermum asiaticum*, 협죽도과
- 영명 : Asiatic jasmine
- 원산지 : 한국, 일본, 대만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낮은 광에서 간접적인 밝은 광까지
- 생육온도 : 5~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삽목, 취목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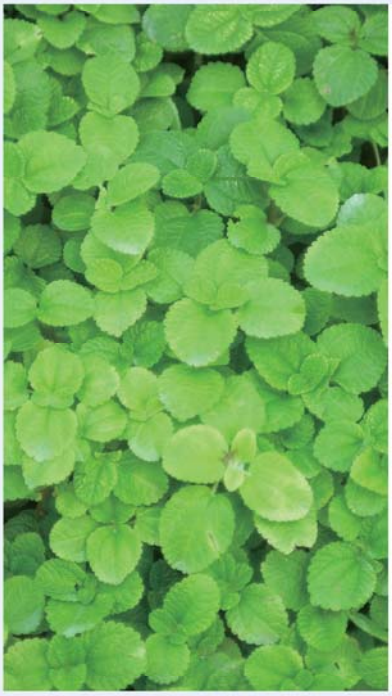
상록 덩굴성 식물로 줄기에서는 뿌리가 내리며, 다른 물체에 붙어 자란다.

종려방동사니

- 학명 : *Cyperus alternifolius,* 사초과
- 영명 : umbrella plant
- 특성 : 관엽, 수생식물
- 원산지 : 마다가스카르
- 이용장소 : 연못가, 실내
- 온도 : 최저 10℃ 이상, 온도 적용범위가 넓어 잘 적응한다.
- 물주기 : 물을 좋아하므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분주, 실생, 삽목(상부의 잎 부분)

TIP

햇빛을 좋아하므로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 둔다.



줄필레아

- 학명 : *Pilea nummularifolia,* 쐐기풀과
- 영명 : creeping charley
- 원신지 : 푸에르토리코, 서인도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낮은 광에서 간접적인 밝은 광까지
- 생육온도 : 13~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분주, 삽목

TIP

직립성으로 자라다가 후에는 덩굴성으로 늘어지는 다년초로 많은 싹이 줄기로부터 나와 퍼진다.

카틀레야

- 학명 : *Cattleya*, 난과
- 특성 : 꽃이 매우 화려하며, 나무나 바위에 자라는 착생란이다. 처음 발견한 영국의 식물학자 이름이 식물이름이 되었다.
- 원산지 : 브라질, 과테말라
- 이용장소 : 봄에는 창가에 두어 충분히 햇빛을 받도록 하며, 5월 이후 50% 차광한다. 잎이 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온도 : 고온성란, 최저 10℃ 이상
- 물주기 : 표면이 마르면 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준다. 겨울에는 건조하듯 관리한다.
- 번식 : 분주

TIP

자생지에서는 우기에 새싹이 자라 잎과 벌브를 형성하고, 건기에는 개화, 휴면하는 습성이 있으며, 건조에 잘 견딘다.

칼라데아 인시그니스

- 학명 : *Calathea insignis*, 마란타과
- 영명 : rattle snake plant
- 특성 : 덩이줄기에서 올라온 달걀 모양 잎의 앞면에 주맥을 축으로 짙은 녹색 또는 암갈색의 반점이 있다.
- 원산지 : 브라질
- 이용장소 : 반음성의 다습한 실내 밝은 창가
- 온도 : 10~22℃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최소 10℃ 이상, 가능하면 15~20℃를 유지한다.
- 물주기 : 4~10월까지 분흙의 표면이 마른 후에 물을 흠뻑 준다. 물 끊어짐을 싫어해 충분한 관수가 필요하다.
- 번식 : 분주, 조직배양

TIP

잎끝 또는 잎 가장자리에 시들어 가는 수가 많아 일반 가정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식물이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잎끝이 아래로 처지거나 싹 끝이 시드는 등의 증상이 있고, 건조할 경우에는 잎이 말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과 충분한 관수가 필요하다.

켄챠야자

- 학명 : *Howea belmoreana*, 야자과
- 영명 : belmore palm, curly palm
- 특성 : 굵은 선이 있는 깃털 모양의 큰 잎을 가진 야자류로 실내조경에 많이 이용된다.
- 원산지 : 오스트레일리아 동부(로드 호우 아일랜드)
- 이용장소 : 환기가 잘 되는 실내의 밝은 장소
- 온도 : 16~30℃의 따뜻한 온도가 적합하나 서늘한 곳에서 기를 수 있으며, 겨울철 최소 5~10℃를 유지한다.
- 물주기 : 생장기에는 토양을 축축하게 유지해 주며 4~10월까지 분흙의 표면이 마른 후에 물을 흠뻑 주며, 물끊어짐에 강한 편이다.
- 번식 : 실생

TIP

직사광에 두면 잎이 노랗게 변하므로 피하고, 다습하게 관리해 주고 3년마다 봄에 분갈이를 해 준다.
큰 화분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10m 정도까지 생육한다.

코르딜리네 레드에지

- 학명 : *Cordyline terminalis* 'Red edge', 용설란과
- 영명 : red good luck plant
- 특성 : 녹색의 바탕 잎과 뚜렷이 대비되는 가장자리에 붉은 줄무늬가 있는 소형 분화 관엽식물
- 원산지 :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폴리네시아
- 이용장소 : 어둡지 않은 반그늘
- 온도 : 22~27℃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최소한 5~10℃ 이상 유지한다.
- 물주기 : 생장이 활발해지는 4월부터는 물을 충분히 주다가 10월부터는 서서히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 겨울에는 건조하게 기른다.
- 번식 : 삽목, 고취법

TIP

지나치게 빛이 부족하면 잎의 색이 희미해지나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은 피한다.

콜레우스

- 학명 : *Coleus blumei*, 꿀풀과
- 영명 : painted nettle
- 특성 : 화려한 잎의 무늬로 여름철 화단 또는 실내를 장식하는 온실성 관엽다년초
- 원산지 : 자바
- 이용장소 : 실내의 밝은 장소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최소 10℃ 유지
- 물주기 : 배양토가 항상 축축하게 보통으로 주다가 겨울에는 관수를 줄인다.
- 번식 : 실생, 삽목

TIP

직사광선을 피하고, 반그늘에 위치시킨다.

크로커스

- 학명 : *Crocus* spp., 붓꽃과
- 영명 : crocus
- 특성 : 구근(알줄기)식물
- 원산지 : 지중해연안
- 이용장소 : 실내 화분, 실외 화단, 지피용
- 온도 : 5~20℃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을 정도로만 준다.
- 번식 : 알줄기(근경)

TIP

다른 구근 종류와 같이 실내에서는 열기구나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수경재배도 가능하다.

크로톤

- 학명 : *Codiaeum variegatum*, 대극과
- 영명 : croton
- 특성 : 열대성 상록 관목으로 다양한 잎 모양과 잎색에 따른 품종이 많고 빛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오래 견딘다.
- 원산지 : 몰루카스 섬
- 이용장소 : 실내의 밝은 곳
- 온도 : 25℃ 정도의 따뜻함을 좋아하고 최소 15℃까지 유지한다.
- 물주기 : 연중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특히 직사광선 아래서 기를 때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번식 : 삽목

TIP

잎의 형태와 색상이 다양한 원예 품종이 많다.

크립탄서스

- 학명 : *Cryptanthus*, 파인애플과
- 영명 : dwarf rose, stripe star
- 원산지 : 브라질
- 광요구도 : 동향, 서향의 간접적인 밝은 광
- 생육온도 : 8~29℃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출아된 싹을 떼어서 삽목

TIP

잎무늬는 민무늬, 줄무늬, 띠무늬에 그린, 빨강, 브라운, 노랑 등 색깔이 다양하고, 잎 크기도 4~15인치까지 다양하다.

클레로덴드럼

- 학명 : *Clerodendrum thomsoniae*, 마편초과
- 영명 : glory bower
- 특성 : 관엽, 관화식물(덩굴성)
- 원산지 : 서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 이용장소 : 실내화분, 공중걸이 화분 등
- 온도 : 18~28℃, 겨울최저 13~15℃ 이상
- 물주기 : 봄에서 가을까지는 항상 배양토가 젖어 있을 정도로 관수한다. (겨울에는 관수량 줄임)
- 번식 : 삽목(봄)

TIP

분화용 여러해살이 덩굴성 작은 나무로, 흰색 포엽과 붉은색 꽃잎의 대비가 아름다운 꽃이 핀다.
용토 pH 6.3 이상에서는 철결핍에 의해 황화현상이 일어나므로 pH 5.0~5.3으로 유지하고, 배수력과 보수력이 좋아야 한다. 2.4m이상 덩굴이 지며 꽃이 예쁜 식물이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공중걸이 화분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봄에 꽃이 필 때 잎에 분무를 자주 해 주위의 습도를 높게 유지해 준다. 따뜻하고 밝은 곳에 두면 더 많은 꽃을 피운다.

클레마티스

- 학명 : *Clematis* spp., 미나리아재비과
- 영명 : clematis
- 특성 : 관화, 덩굴성 식물
- 원산지 : 중국
- 이용장소 : 실외 울타리, 실내 공중걸이 화분 등
- 온도 : 영하 10℃까지 견딜 수 있고 정원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는 시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번식 : 봄에는 새로운 가지, 늦여름에는 반쯤 굳은 가지로 삽목한다.

TIP

덩굴을 지지할 지지대가 필요하며, 물과 양분을 충분히 준다.

타제타수선화

- 학명 : *Narcissus tazetta,* 수선화과
- 영명 : narcissus geranium
- 특성 : 구근(알뿌리)식물
- 원산지 : 프랑스, 중국
- 이용장소 : 실내 화분, 실외 정원
- 온도 : 5~20℃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을 정도로만 준다.
- 번식 : 알뿌리

TIP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우고 싶을 때는 꽃이 지고 난 후 꽃만 따내고 물과 비료를 주어 구근을 충실하게 한 후 잎이 누렇게 될 때 캐어 건조시켜 시원하고 컴컴한 장소에 보관한다.

테이블야자

- 학명 : *Chamaedorea elegans,* 야자과
- 영명 : parlor palm
- 특성 : 열대 관상식물, 상록관목
- 원산지 : 멕시코 북부
- 이용장소 : 실내의 반 그늘진 장소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에는 최소한 5~10℃ 이상 유지한다.
- 물주기 : 4~10월까지 분흙의 표면이 마른 후에 물을 흠뻑 준다. 물 끊어짐에 비교적 강한 편이다.
- 번식 : 실생, 분주

TIP

테이블 위에서 야자수의 시원한 수형을 감상할 수 있는 소형 야자류로 줄기가 녹색으로 아름다워 그린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 2~3m 정도까지 생육하며, 충분한 관수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트라데스칸티아

- 학명 : *Tradescantia fluminensis* var. *variegata,* 닭의장풀과
- 영명 : wandering jew, inch plant
- 특성 : 덩굴성 관엽
- 원산지 : 브라질
- 이용장소 : 빛이 잘 드는 곳, 공중걸이
- 온도 : 최저 7~10℃ 이상, 생육적온 15~25℃
- 물주기 : 겨울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관수한다.
- 번식 : 겨울을 제외하고는 바로 삽목 가능하다.

TIP

빛이 부족하면 무늬가 없어지므로 주의한다.

틸란드시아 시아네아

- 학명 : *Tillandsia cyanea,* 파인애플과
- 특성 : 꽃처럼 보이는 부분은 포엽이고, 실제의 꽃은 노랗고 작은 포엽 안쪽에 있는 것으로 포엽이 최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피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 원산지 : 에콰도르, 페루
- 이용장소 :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빛
- 온도 : 20~25℃(겨울에는 최저 10℃ 이상)
- 물주기 : 과도한 물주기를 피하나 배양토를 축축하게 해 준다.
- 번식 : 분주(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식물체)

TIP

건조에 강한 편이지만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분무해 주는 것이 좋다.

파키라

- 학명 : *Pachira aquatica*, 물밤나무과
- 특성 :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목본성의 줄기는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고, 큰 잎자루에는 타원형 잎이 달린다. 잎의 뒷면에 당으로 이루어진 작은 결정체들이 생기는데, 해롭지 않으므로 그냥 둔다.
- 원산지 :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멕시코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20~25℃(겨울에는 최저 15℃ 이상)
- 물주기 :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약간 건조하게 관리한다.
- 번식 : 파종

TIP

피침형의 잎이 둥글게 모여 하나의 잎을 이루고 있다.
내한성, 내음성이 뛰어나 실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관엽식물로 줄기를 자르면 새 순이 여러 개 나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한 두 개의 줄기에 우산같이 많은 작은 줄기와 잎을 내어 상품화한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곳이 좋다. 매년 이른 봄에 분갈이와 가지치기, 모양 다듬기를 한다.

파피오페딜룸

- 학명 : *Paphiopedilum* spp., 난과
- 특성 : 꽃 모양이 매우 특이하며, 우리나라의 털복주머니란과 유사속
- 원산지 :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뉴기니아
- 이용장소 : 그늘과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람, 통풍이 잘 되는 곳
- 온도 : 저온에서 잘 자라며, 열대성은 20~30℃, 온대성은 15~25℃에서 키운다.
- 물주기 : 표면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며, 포기 사이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번식 : 분주

TIP

다른 난에 비해 저온에서도 잘 견디고 병충해가 적으며 번식이 잘 되고 키우기가 쉽다.

팔레놉시스

- 학명 : *Phalaenopsis* spp., 난과
- 특성 : 고온성난으로 꽃눈 형성은 고온에서 억제되고 25℃/18℃(주/야)에서 촉진된다.
- 원산지 : 대만, 필리핀, 인도, 호주
- 이용장소 : 실내 밝은 곳,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 온도 : 최저 18℃ 이상
- 물주기 : 마르면 흠뻑 주되 잎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번식 : 조직배양(단경성 난으로 포기가 생기지 않음)

TIP

습도유지가 필수적이며, 화분 밖으로 뿌리가 뻗어 나오면 분갈이가 필요하다.

팔손이나무

- 학명 : *Fatsia japonica*, 두릅나무과
- 특성 : 마치 손가락처럼 7~11열로 깊게 갈라진 큰 잎이 호생하며, 잎 양면에 털이 없고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뒷면은 황록색이다.
- 원산지 : 한국, 일본
- 이용장소 : 반음성의 다습(70% 이상)한 장소
- 온도 : 생육적온 20~27℃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도록 관리하며, 물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분무한다.
- 번식 : 실생, 삽목

TIP

4~9월까지 연 1회 영양관리를 해 준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 학명 : *Peperomia obtusifolia*, 후추과
- 영명 : pepper face, baby rubber plant
- 특성 : 다육질인 짙은 녹색의 둥근 잎은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다소 말려 주걱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 원산지 : 베네수엘라, 열대 아메리카
- 이용장소 : 해그늘이나 창 가까운 밝은 실내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10℃ 이상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봄~가을까지 겉흙이 마르면 보통으로 관수하며, 과습에 약하다. 물끊어짐에 비교적 강한 편이다.
- 번식 : 삽목

TIP

공중 습도는 다습하게 관리하며, 환기를 요한다.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

- 학명 : *Peperomia clusiifolia*, 후추과
- 영명 : red edge peperomia
- 특성 : 타원형의 다육질 잎으로 가장자리는 붉은 빛이 도는 관상용 관엽식물
- 원산지 : 서인도제도, 베네수엘라
- 이용장소 : 실내의 반 그늘진 장소
- 온도 : 18~23℃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최소 10℃ 이상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봄~가을까지 겉흙이 마르면 보통으로 관수하며, 과습에 약하다. 물끊어짐에 비교적 강한 편이다.
- 번식 : 삽목

TIP

공중습도는 다습하게 관리하며, 환기를 요한다.

푸밀라고무나무

- 학명 : *Ficus pumila* 'Variegata', 뽕나무과
- 영명 : variegated creeping fig
- 특성 : 덩굴성 관엽식물
- 원산지 : 동아시아
- 이용장소 : 실내화단 지피용, 목부작, 석부작 등
- 온도 : 15~25℃(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다른 고무나무에 비해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 번식 : 삽목

TIP

너무 자주 옮겨심기는 피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덩굴이 무성해졌을 때 가지치기를 한다. 여름에는 잎에 자주 분무해 준다.

프테리스

- 학명 : *Pteris cretica* var. *albolineata,* 고사리과
- 영명 : variegated table fern
- 특성 : 긴 잎의 중앙에 흰 무늬가 있는 관엽식물
- 원산지 :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남부, 멕시코
- 이용장소 : 화분식물, 실내정원의 아랫부분에 색상을 주고 싶을 때 이용, 실내 밝은 장소
- 온도 : 보통온도 15~21℃(밤에는 시원한 것을 좋아함)
- 물주기 : 배양토에 항상 습기가 있도록 관리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음)
- 번식 : 분주

TIP

고사리과 중에서 잎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기르기 쉬운 종류이다. 배양토가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면 아름다운 색상과 모습을 관상할 수 있다.

피토니아 핑크스타

- 학명 : *Fittonia verschaffelti* 'Pink star', 쥐꼬리망초과
- 특성 : 생장이 느리며, 포복하는 성질이 있다.
- 원산지 : 남아메리카, 페루
- 이용장소 : 부분적으로 빛이 드는 장소, 직사광선을 피함
- 온도 : 최저 15℃ 이상
- 물주기 : 봄부터 가을까지는 충분하게, 겨울에는 토양이 바싹 마를 때 인색하게 주고, 미온수를 이용한다.
- 번식 : 삽목, 분주

TIP

잎 주변에 지속적인 수분과 따뜻함을 요구하며, 공중습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물을 좋아하나 지나친 물주기에 줄기가 물러 버린다.

피토니아

- 학명 : *Fittonia verschaffelti* var. *argyroneura*, 쥐꼬리망초과
- 영명 : fittonia
- 특성 : 내음성이 강함
- 원산지 : 페루
- 이용장소 : 실내의 에어컨 등 바람을 피한 밝은 장소
- 온도 : 15~30℃의 온도가 적합하며, 7~9℃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건조에 약하므로 봄에서 가을까지는 항상 습기가 있도록 충분히 관수하며, 겨울에는 적은 듯 관수 관리한다.
- 번식 : 삽목, 분주

TIP

공기 건조에도 민감하므로 보습에 주의한다.

필레아 글라우카

- 학명 : *Pilea glauca,* 쐐기풀과
- 유통명 : 타라, 블루체인
- 특성 : 덩굴성 관엽식물
- 원산지 : 남아프리카
- 이용장소 : 실내화단 지피용, 공중걸이, 실내화분 등
- 온도 : 15~25℃(겨울에는 5℃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 번식 : 분주

TIP

열대성 지피식물로 옆으로 뻗는 성질이 강하고 실내적응성이 좋으며 빛이 적을 때 연약하게 자라는 성질이 있고 보통 '블루체인', '타라'로 유통된다.
너무 그늘에서는 줄기 사이가 길어지며 모양이 흐트러지므로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빛을 쬐어 주면 잎이 엉성하지 않고 귀엽게 자란다.

하트 펀

- 학명 : *Hemionitis arifolia,* 고사리과
- 영명 : heart fern
- 특성 : 하트 모양의 잎이 매력적인 관엽식물
- 원산지 : 열대아시아
- 이용장소 : 실내 화분 식물
- 온도 : 8~40℃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물을 많이 주는 것은 금물!)
- 번식 : 포자, 엽아

TIP

습한 곳을 좋아하지만 뿌리가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싫어하며, 빛은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싫어한다.

해마리아

- 학명 : *Haemaria discolor* var. *dawsoniana*, 난과
- 영명 : jewel orchid
- 특성 : 벨벳 질감의 검은색 잎 표면에 세로로 붉은색 줄무늬가 있음
- 원산지 : 싱가포르, 버마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 이용장소 : 실내 반그늘
- 온도 : 겨울철 최소 15℃ 유지
- 물주기 : 보통으로 관수를 해 주며, 다습한 것을 좋아해 자주 분무해 준다.
- 번식 : 삽목, 분주

TIP

난과 식물중 기르기 쉬운 종류이다.
주로 서늘한 가을에서 겨울사이에 꽃이 형성되고, 겨울에서 초봄에 걸쳐 꽃이 핀다.

행운목

- 학명 : *Dracaena sanderiana*, 용설란과
- 영명 : corn plant, lucky tree, fragrant dracaena
- 특성 : 관엽, 관목
- 원산지 : 기니아, 동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 이용장소 : 분화, 수경재배, 디쉬가든
- 온도 : 15℃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흠뻑 준다.
- 번식 : 삽목

TIP

분화, 수경재배, 디쉬가든에 이용하며 영명(英名)이 'Lucky Tree' 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목질화가 느리고 비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줄기를 매년 수입하고 있다.
내음성이 강하며, 겨울에는 약간 건조하도록 수분관리한다.

호야 트리칼라

- 학명 : *Hoya carnosa* 'Tricolor', 박주가리과
- 특성 : 작고 타원형인 다육질의 잎이 늘어진 가지에 달리는 관목이다. 꽃은 윤기 나는 흰색에 중심부가 분홍색이며, 늘어진 산형화서를 이루며 무리 지어 핀다.
- 원산지 :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 이용장소 : 통풍이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 온도 : 20~25℃(겨울에는 최저 15℃ 이상)
- 물주기 : 규칙적으로 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 번식 : 삽목(봄, 여름)

TIP

왁스 칠한 듯 윤기 있는 두툼한 연녹색 계란형 잎 가장자리에 흰 무늬가 있는 덩굴식물로 잎은 다육질이며 환경적응력이 크다. 빛이 많은 곳에서 생육이 좋으며, 방향성의 꽃을 피운다.
낮에 12시간 이상 일장에서 꽃봉오리가 형성된다.
잎색의 변화가 많아 테라리움이나 각종 아이디어 소품용으로 이용한다.

황금마삭줄

- 학명 :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variegatum*, 협죽도과
- 영명 : Chinese ivy
- 특성 : 관엽식물
- 원산지 : 아시아
- 이용장소 : 실내화단 지피용, 테라리움, 실내화분 등
- 온도 : 5℃ 이상
- 물주기 : 겉흙이 마르면 흠뻑 준다.
- 번식 : 실생, 삽목, 취목

TIP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빛이 필요하다.

후크시아

- 학명 : *Fuchsia hybrida*, 바늘꽃과
- 영명 : fuchsia, lady's eardrops
- 원산지 : 페루, 칠레, 멕시코, 서인도제도 원산종의 교배종
- 광요구도 : 남향, 동향, 서향의 밝은 간접광
- 생육온도 : 10~24℃
- 공중습도 : 보통습도, 50~60%
- 물주기 :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
- 번식 : 실생, 삽목

TIP

겨울에 건조하지 않도록 분무하며 공중걸이 장식이 이상적이다.

히아신스

- 학명 : *Hyacinthus orientalis*, 백합과
- 영명 : hyacinth
- 특성 : 구근(알뿌리)식물
- 원산지 : 지중해 부근 유럽
- 이용장소 : 실내화분, 수경재배, 실외정원
- 온도 : 5~20℃
-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을 정도로만 준다. 수경재배(뿌리만 물에 잠김)
- 번식 : 알뿌리

TIP

구근이 충분한 저온처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밝고 따뜻한 곳으로 급히 나왔을 때, 꽃이 피지 않거나 꽃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히포에스테스

- 학명 : *Hypoestes sanguinolenta*, 쥐꼬리망초과
- 영명 : polka dot plant
- 특성 : 온실성 상록 초본 관엽 식물, 소형 분화식물
- 원산지 : 마다가스카르
- 이용장소 : 에어컨 등 바람 나오는 곳을 피한 실내의 반 그늘진 장소
- 온도 : 10~22℃의 온도가 적합하며 겨울철 10℃ 이상에서 월동 가능하다.
- 물주기 : 봄~가을까지 항상 습기가 있도록 관수하며, 겨울에는 적은 듯 보통으로 관수 관리한다.
- 번식 : 실생, 삽목, 분주

TIP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광택 있는 포엽이 아름다워 실내에서 분화로 기르는 초화이다.
고온성이고, 공기건조에 민감한 편으로 야간에는 비닐봉지로 화분을 씌우는 등의 보온 · 보습을 필요로 한다.

부착형 화분을 이용한 테이블 정원

내가 만드는 실내정원

발행일 2010년 8월 30일
인쇄일 2010년 8월 28일

발행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최동로
집 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정순진, 이동우, 이재욱, 문지혜, 최상설, 송정섭
편집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고관달

인 쇄 세명문화사 ☎ 031-221-1276

내가 만드는

실내정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우)440-7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Tel. 031-240-3500 Fax. 031-240-3629

93520
9 788948 006872
ISDN 978-89-480-0687-2